

2 0 1 8 . 9 · 1 0 월 / 통 권 1 0 1 호

독립정신

권두언_ 한반도 평화와 '9월 평양선언'

특집_ 항일여성 독립운동 국제심포지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를 찾다

레지스탕스(Résistance), 세계를 향한 저항

답사단 동행기_ 러시아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녀와서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백두산 정상에 오른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천지에 새 역사를 담자'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한 의지를 되새기고 있다.



앞줄 신익희 · 안창호 · 현순

뒷줄 김철 · 윤현진 · 최창식 · 이춘숙



독립정신

2018 9*10

통권 101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김대영, 최석우, 이일선, 박덕진,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 04 권두언
한반도 평화와 '9월 평양선언' | 이승환
- 08 회장님 인터뷰_
임시정부의 산증인, 김자동 회장을 만나다 | 윤혜숙
- 14 서평_
독립정신의 원체험,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읽다
| 최석우
- 18 특집1_
평화가 경제입니다. | 문재인
- 24 특집2_
항일여성 독립운동 국제심포지엄 | 원희복
- 26 특집3_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를 찾다
- 36 특집4_
레지스탕스(Résistance), 세계를 향한 저항
| 황현지
- 40 답사단 동행기_
러시아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녀와서
| 조재곤

- 52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답사단
| 편집부
- 60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_최우수작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독립운동 이야기
| 김성찬
- 87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_우수작
독립정신이 나에게 뿌리 내리기까지
| 태호앤조애
- 92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경남 서부와 임시정부 | 추경화
- 97 임정서가_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백범의 길 ; 조국의 산하를 걷다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잊혀진 전설 ; 항일무장투쟁의 불꽃, 의열단과 김원봉
통감부래안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용서
| 편집부
- 103 독립정신 이모저모
- 108 제73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177명)



한반도 평화와 '9월 평양선언'



이 승 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무엇일까? 연도에 늘어선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역사적인 '9월 평양선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집단체조공연, 아니면 맑디 맑은 천지 앞에서 두 손 맞잡은 남북 정상 이외의 우의 과시 등등.

물론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이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백미는 무어라 해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임에 틀림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도 의미가 크지만, 15만 북한 인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 없는 한반도를 공표한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수뇌부끼리의 톱다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인민들에게도 수용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가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통해 전세계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무대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이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호소할 수 있었다.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주장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9월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탈냉전의 흐름은 더 이상 막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낮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그리고 연이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남북 모두가 동의하는 속에서 '주한미군 주둔 하의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완전한 비핵(지대)화 실현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을 병립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과 같은 '낮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핵목록 신고 등 비핵화의 세부적 프로세스 못지않게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평가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역시 '핵목록 신고' 등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중국을 넘어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인) 1992년 초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해 달라.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었다.”고 말한 것이나,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은 영토적 야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통일 이후에도 남쪽에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연장선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증언).

즉 북한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인식해왔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평양선언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한미동맹 사이의 풀리지 않는 ‘모순’의 고리를 확실히 풀어낸 셈이다.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

주한미군을 매개로 한 ‘낮은 수준의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함께 주목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이른바 ‘9월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한 점이다. 이 부속합의서는 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협약’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NLL일대의 평화수역화’,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및 구조적 군비통제(operational and structural arms control)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선제적인 상호위협감소(MTR) 행동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속합의서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관련한 남북 간의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라는 남북 사이의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해, 이제 정치적 의미 외에는 굳이 복잡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70년에 걸친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은 이제 북미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충분한 여건을 형성한 셈이다.

동결을 넘어 ‘불능화’로

한편 ‘9월 평양선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목록 신고’ 의사 표명 등 비핵화 관련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추진에 값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반대’라는 사실상 실패한 선비핵화 주장의 재판(再版)이거나, 아니면 ‘핵목록신고=종전선언’이라는 도식적 등가교환 논리에 매몰된 단견에 불과하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는 논리는 상대에 대한 맹목적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신고와 검증’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비핵화 실질적 조치보다 오히려 ‘분쟁이나 굴복이나’를 부각시키는 양자택일적 태도에 매몰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고와 검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미국의 전통주의자 혹은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분식하는 논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9월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신고와 검증’이라는 문법 대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나아가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신고와 검증’ 등의 논란을 넘어 미래핵에 대한 ‘자발적 불능화와 폐기’ 및 이에 대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과 검증으로 직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동결의 시작을 의미하는 ‘핵목록 신고’ 대신 곧바로 ‘검증 가능한’ 불능화 조치 실시를 제시하고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9월 평양선언’은 북한 핵 불능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향상과 북미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러한 북의 조치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화답할 차례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공동발표문에 반영하는 것을 수용하면, 사실상 남북 및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 추가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북제재 완화 등이 예상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 현재 핵의 일부 반출 등의 조치와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진행되면 냉전과 핵에 묶여 있던 한반도 평화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도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산증인, 김자동 회장을 만나다

〈광복 73주년 ②〉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인터뷰

2018.8.14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정 마지막 날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청사 계단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 언론에 배포된 그 사진 한 장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격하게 만들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귀국하기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연상하게 했다.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 왼쪽 2017년, 오른쪽 1945년.(출처=청와대)

당시 김정숙 여사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이 김자동 회장이다. 2004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온 김자동 회장은 1929년 출생해서 지금

아흔이 넘는 고령이다. 현재 임시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서너 분이 생존해 있다. 그분들 중 가장 젊다. 100여 년 전, 김자동 회장의 조부와 부친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진 중국으로 망명했다. 김자동 회장이 중국에서 태어난 연유다. 1945년, 충칭 임시정부 청사 옆 광복군 숙소에서 광복을 맞았다. 광복 이후에 귀국해 2004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을 찾아가 김자동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고령의 연세에 장시간 인터뷰하기 힘들 텐데 지나간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오히려 그분보다 훨씬 젊은 필자는 도중에 목이 말라 여러 번 물을 마시곤 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Q : 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땠나?

A : 1945년 그해 여름 중국 충칭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다. 머지않은 시기에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8월 15일 저녁 8시쯤이었나 보다. 그때 내 나이 17살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생에 불과했다. 나는 일찌감치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집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 몇몇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떠들썩하게 “만세”라고 외쳤다. 나는 그때

충칭 임시정부 청사 근처에 있던 광복군 숙소에서 합숙하고 있었다. 일본 시간 기준으로 낮 12시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했다고 한다. 시차가 늦어서 충칭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길거리를 나서니 중국인들도 환호하면서 너도나도 딱총(화약총)을 들고 쏘아대고 있었다. 축제와도 같은 저녁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자정이 넘어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다. 내 예상대로 부모님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부모님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다. 두 분은 일본의 항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셨다. 당시 광복군 산하 국내 진입부대가 막 훈련을 끝내고 국내 침투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광복군이 국내 침투작전을 수행해 보지도 못한 채 일본이 항복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나도 어렴풋이 부모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8·15 광복 후 미국은 일본의 선전대로 조선이 독립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38선을 경계로 분할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했다. 미군은 한반도 남쪽의 치안 유지가 우선이었다. 일제 때 순사 출신을 다시 경찰로 기용했다. 중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였던 광복군 출신을 우대하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Q : 조부 김가진 선생에 이어 아버지 김의한 선생, 어머니 정정화 선생도 독립운동가였다.

A :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때 아버지는 만 19살 늦깎이 중학생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계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당시 중국 상하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한 공공기차공사가 기차와 버스를 총괄해서 운영했다. 영국인 대표는 승차권 검표원으로 중국인보다 성실한 조선인을 채용해서 조선인 직원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검표원으로 취직해서 돈을 벌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습득했다.

Q :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활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A : 1932년 1차 상하이사변으로 일본이 중국 상하이의 절반을 점령했다. 1월

28일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했을 때 지방군이 5주간 버티면서 항전하다가 중앙 정부군의 지원이 없어서 3월 25일 휴전협정을 맺었다. 4월 29일 일본 천황의 생일에 맞춰 홍콩우공원에서 경축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본은 상하이에 진출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인사를 초청했으나 일본군의 불법 점령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을 통보했다. 홍콩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질 때 일본군 고위관료만 있었다. 중국인들은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에 분통 터져 하다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보면서 고맙게 생각했다. 그때부터 중국의 민간인들이 모금해서 임시정부를 돕기 시작했고, 중국의 장제스 정부는 일본군의 눈을 피해 뒤에서 지원했다.



왼쪽의 김구 선생이 안고 있는 아기가 김자동 회장, 오른쪽이 김자동 회장의 어머니.

Q : 김자동 회장이 기억하는 김구 선생의 모습은?

A : 김구 선생은 일본군에 의해 현상금이 걸려 있어 가족들과 떨어져서 따로 살았다. 임시정부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침식사를 간단하게 죽으로 때웠다. 김구 선생은 체구가 커서 금방 허기가 졌다. 어머니는 김구 선생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늘 2인분의 밥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김구 선생은 어린 나를 안아서 어르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하이에서의 기억은 없다. 4살 때 창사로 이사했다. 그 이후 기억은 또렷하다. 김구 선생이 거주하던 집에서 뒷문으로 나가면 호수가 있었다. 목선을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여자 뱃사공이 있어서 노를 저었다. 만약 일본군이 들이닥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배를 탔다. 집 유리창에 하얀 천이 내걸리면 안심하고 귀가했지만, 하얀 천이 아니면 며칠간 배 안에 머무르면서 지냈다.

Q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 특별히 친했던 분이 계신다면?

A : 마지막 충청 청사에 있었던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다 기억난다. 나는 이 시영 선생만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나머지는 다 아저씨라고 불렀다. 선전 부장을 맡았던 엄항섭 선생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아 아주 가까웠다.



2017년 12월 중국 충청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의 기념사진.

현재 중국 곳곳에 6개의 청사가 보존되어 있다. 김자동 회장의 말을 듣는 내내 울컥해서 눈물을 쏟을 뻔했다. 그동안 책에서 보았던 역사적 사건이 김자동 회장의 입을 빌려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역사의 현장에 가서 목격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을 기리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이며, 헌법에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각지에 흩어진 우리의 임시정부 청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사적도 보존하겠다고 했다.



김자동 회장과 딸 김선현 대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매년 음악제, 영화제, 문학제 등을 열고 있다. 지난 6월 1일~2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개최한 음악제에선 임시정부 인사들 중 음악가였던 좌파 정윤성 선생, 우파 한유한 선생 두 분의 곡을 갖고 창작오페라를 공연했다.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극장에서 개최될 영화제는 레지스탕스영화제로 국내 최초의 역사영화제다. 뒤이어 11월에 개최될 문학제는 ‘백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누리집(<http://www.kopogo.com/main.php>)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독립된 국가에서 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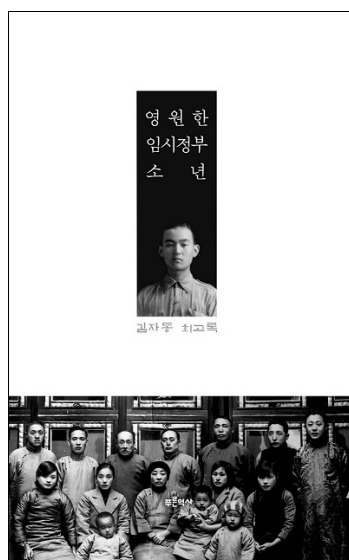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위 글은 대한민국정책기자단(2018.08.14)에 게재된 기사를 필자의 동의하에 전재한 글입니다.

독립정신의 원체험,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읽다

김자동,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푸른역사, 2018

최 석 우 본지 편집위원



우리 현대사 최대의 통점(痛點)은 38선과 6·25다. 예측과 압제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손으로 해방을 움켜쥐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립전쟁을 방해하고 방관했던 우리가 분단으로 살찐 자들의 아버가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세상에 자원봉사로 부역하는 놈이 어디 있나. 적어도 지난 세기, 대한민국은 동포의 눈물과 땀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운 자들의 나라였다.

망국의 치욕, 분단의 저주, 전쟁의 원한, 독재의 비정(秕政). 이 땅에 사는 이라면 누구도 이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맞서고, 피하고, 짓밟고, 틈타고.... 누군가는 이웃을

보듬고, 또 누군가는 이웃을 범하며, 수많은 군상(群像)이 얼굴을 들었다가 사라졌다. 우리는 그때를, 그때를 살아온 인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들에게 배웠으

며, 해방이 되어서는 동족상잔으로 가는 막다른 길을 목격하고 시대의 부름에 외면하지 않으려 애쓴 사람,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그가 구순을 맞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썼다. 이름하여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독립을 향한 임시정부의 길고 험한 여정. 우리는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의 역사를 일백분의 일도 채 알지 못한다. 내년이면 100년이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 김자동 회장은 3대가 임시정부에 복무한 독립운동 집안에서 자랐고,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그의 유소년기는 임시정부의 망명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백범을 “아저씨”라 부르며 컸을 만큼, 독립정신이 골수에 박힌 어른이다. 이런 원체험을 바탕에 둔 삶의 증언이니, 후학들에게는 우선 감사하고 떨리는 책이다.

우리 현대사가 가쁜 숨을 토해내던 장면들을 회고하는 자서전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부끄럽게도, 자화자찬 아니면 건강부회로 일관하는 책들이 태반이다. 품이 들어가는 출판을 감당할 만한 여유를 확보한 인생이란 대개 시대정신과 거꾸로 살았기가 십상이라, 그럴 수밖에. 사료(史料)는 고사하고, 야담으로 풀기도 미심쩍다.

이 점에서, 이 책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은 완전히 격을 달리한다. 직접 겪은 일과 전해 들은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사건들을 육하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기록했다. 특히, 우리 현대사의 향배를 결정지은 중대한 장면들 - 예를 들어 <동아일보>의 모스크사 3상회의 오보 사건과 같은 - 에 이르러서는, 비밀해제된 강대국의 정부문서를 독자가 지칠 만큼 자세하게 인용한다. 자서전을 넘어 사서(史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과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해서 역성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성재(省齋) 이시영, 해공(海公) 신익희의 경우가 그렇다. 백범의 손을 뿌리치고 이승만의 단정노선에 합류한 그들의 선택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성재는 할아버지나 다름 없었고, 해공은 주례를 서준 분이였음에도 말이다. 이처럼, 이 책에 등장하는 수백 인물과 수백 사건의 기술에서 번문옥례(繁文縟禮)와 훼손포폄(毀譽褒貶) 따위의 비루한 수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임시정부가 26년 세월 동안 동지를 틀었던 대륙 곳곳의 경관과 풍물, 인민의 일상이 한 편의 활동사진처럼 펼쳐진다. 중일전쟁이 터지자 임시정부 식구

들은 남부여대하여 장장 5천km가 넘는 피난길에 올랐다. 그는 요즘도 중국 지도책을 책상 위에 놓고 그 시절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더듬곤 한다. “여기가 임시정부의 첫 번째 기착지였던 류저우(柳州)예요. 주강(珠江)을 거슬러 올라 갔는데, 배 위에서 사십일을 보냈어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지라 고전(古典)에 밝아서, 지명(地名)의 유래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 파촉(巴蜀)이라고 하면, 파는 충칭(重慶)이고 촉은 청두(成都)인데, 충칭은 12세기 말 남송(南宋)의 광종(光宗)이 이곳의 왕으로 있다가 훗날 황제가 되어 겹경사가 났다는 뜻이라는 식이다.

고달픈 망명 생활을 그리는 대목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면모가 약연(躍然)하고, 심지어 성격의 일단까지 엿볼 수 있다. 의열단 의백(義伯) 약산(若山) 김원봉의 아내 박차정이 눈을 감던 순간이 처연하고, 광복군 제5지대장 나월환이 왜놈도 아닌 동지의 손에 목숨을 빼앗긴 기막힌 사연이 밝혀진다. 중국의 영화황제로 등극했던 배우 김염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실로, 임시정부에서 한술밥을 먹은 사이가 아니라면 결코 전할 수 없는 드라마가 아닌가.

왜놈들이 ‘센징’이라 멸시했다면, 중국인들은 때로는 우리 동포를 ‘왕귀누(亡國奴)’라 깔보았다고 한다. 동급생이 그런 말을 내뱉으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눈을 찔렀다는 임시정부 소년. 스페인내전 때 공화국 군대에 자원한 소년병들의 사진을 보고, 나도 총을 들고 싸워야겠다고 다짐하던 그 소년은 열여섯의 나이에 항일학생의용군에 자원입대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도와 조국으로 송출하는 단파방송 원고를 쓴다.

조국에 돌아온 임시정부 소년을 맞은 것은 분단과 미군정이었다. 친일파들이 설치고 모리배들이 날뛰는 모습은, 소년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지옥도의 불길한 서막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백범이 흥탄에 쓰러졌다. 고등학교 졸업식에 친히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주신 게 불과 두어 달 전의 일이었는데... 급기야 동란이 터져, 아버지는 북으로 끌려가셨으며, 어머니는 피난 가지 않았다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철창에 갇히는 몸이 되셨다.

그라고 왜 희로애락이 없었을까.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 하지만, 이제 가장이 된 임시정부 소년에게 가장 환멸스러운 단어는 ‘순응’이었다. 동아일보가 불러도, 박정희가 불러도,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핍박받는 이들을 숨겨주고 남몰래 도우면서, 어느

덧 그는 지조를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배가 되어갔다.

조선민족대동단 총재이자 단 한 명뿐이었던 임시정부 고문으로 추대된 할아버지 동농(東農) 김가진. 백범의 오른팔로 독립운동부터 단정반대운동까지 평생을 함께 한 아버지 성엄(誠廣) 김의한. 독립자금을 구하러 압록강을 넘나들고 요인들을 봉양하며 임시정부의 만머느리 역할을 해낸 어머니 수당(修堂) 정정화. 광복군의 막내로 국내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 왜놈이 항복하는 바람에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촌형 김석동. 김자동 회장이 환갑을 맞았을 무렵, 이 3대에 걸친 독립운동 집안에는 노동조합위원장이 셋이었다. 큰딸, 큰사위, 작은딸.

구순의 고령에도, 8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김자동 회장. “나는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다. 평생을 임시정부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았다. 임시정부는 내 삶의 뿌리였고, 살아가는 길의 좌표였다.” 그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독립정신이라는 원체험은 이렇게 강렬했다.

우리 현대사는 잿빛이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역사란 아프지만 치열했던 기억을 버리는 일인데, 야비하고 참담했던 기억은 감추라고 호령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게도, 서사(敍事)는 지워지고, 맥락은 비틀린다. 밝은 곳에 먹칠하고 어두운 곳에 분칠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의 색깔은 우중충해진다.

역사는 기억을 조직하는 이들의 것. 자서전이란 어쩌면 개인의 원체험을 집단의 추체험으로 이어주는 다리다. 그 다리에서 앞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현대사를 짓누르는 먹구름은 걷힌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둔 뜻깊은 시점에 독립정신을 되새길 소중한 기회를 선물한 저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독립정신 독자 여러분께 정독을 권한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평화가 경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

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뻥뻥합니다. 것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이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 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 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 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에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험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 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5일

대통령 문 재 인



항일여성 독립운동 국제심포지엄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원 희 복 본지 편집위원 · 경향신문 기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8월 13일 ‘3·1혁명-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여성독립운동’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희선) 주최로 ‘아! 항일여성이어!’ “3·1혁명에서 8·15 광복까지”-2018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헌익(영국 캠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 씨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의 파괴는 여성참정권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 여성이 주도하는 국제평화운동도 이때부터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이명화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여자애국단’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여자애국단 등 여성운동이 대중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 계기는 3·1운동”이라며 “특히 해외로 나간 여성들은 고된 이민생활 속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적극 투쟁하고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해지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을 발표한 김성은 대구한의대 교수는 대한애국부인회 김순애 회장과 정정화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임시정부 지원금 모금 사례로 정정화의 경우 “친정에서 돈을 얻어 오려던 사적인 계획이 임정 법무총장 신규식의 지시에 따른 공적 임무로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

리광인 중국 절상월수외국어대 전임교수는 ‘김숙경 지사의 생애와 활동-훈춘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1919년 2월 훈춘, 연길, 화룡, 왕청 등지에 있는 김숙경 지사를 비롯한 8명 여성독립운동가가 ‘대한독립여자선언서’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일본 유학생의 2·8독립선언서와 더불어 3·1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 강경숙(성균관대) 씨는 ‘3·1혁명 참가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2018년 7월 현재 국가보훈처가 표창한 독립유공자 1만4879명 중 여성은 299명인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한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올해 국가보훈처 산하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됐다”면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대중강좌,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토론회, 추모대회 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를 찾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회의 및 공청회

일 시 : 2018년 8월 21일(화) 9:30~17: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 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지난 8월 2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주최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학술회의 및 공청회가 열렸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코앞에 두고, 기념관 건립의 나아갈 바를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이종찬 기념관 건립위원장), 축사(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1부 3·1운동과 임시정부, 2부 기념관 건립, 3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찬 건립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임시정부 탄생 백년 동안의 숙원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세우게 됐다”며 감격을 피력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을 전부 담아서 기념관 건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립정신>이 1부와 2부의 주요 발제 및 지정토론 요지를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 주)



1부 발제1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 민족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은 민국 곧 민주공화국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10년 강제병합 당시만 해도 황제가 유일한 주권자이던 대한제국이 불과 9년 뒤에 일어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계기로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해방 이후 첫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 초안에는 ‘3·1혁명’으로, 그리고 수정안에는 ‘3월혁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헌법 조문을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독립운동을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3·1혁명’이 ‘기미3·1운동’으로 바뀌었다.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 이후의 혁명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주공화제국가인 대한민국이 출범했다는 사실이다.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수반했다.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계기였을 뿐 원인은 아니었다. 1910년대 초부터 해외 독립운동 진영에서 등장한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만세시위를 계기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은 분명히 자주독립을 목표로 한 민족혁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민주혁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아니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포함한 독립운동 자체가 그랬다. 독립 이후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가 동의했다. 민주주의는 독립운동 진영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민주혁명 출발점이 바로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이었다.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상징하는 것은 ‘거족적’이라는 세 글자다. 실제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분열과 대립의 관점에서 보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길게 보면 독립운동은 분열과 대립을 극복해 통합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1940년대 임시정부 안에서 좌우합작 등이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은 새로운 근대적 주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중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청년, 여성, 노동자의 등장이 중요하다.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은 여성이 독립운동의 일선 더 나아가서는 사회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파업과 시위를 벌임으로써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의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토론 : ‘3·1혁명’에 동의한다 (윤경로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저간의 왜곡된 폄하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민족대표로 선정된 33인은 한두 분 정도를 제외하면 지체 높은 양반층도, 신분이 높은 분도 아닌 대체로 평민 출신의 종교계 인사들이었다. 이 사실에 유념해야 3·1만세운동이 혁명운동 곧 국권재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된 이념적 사상적 운동배경과 연관되어 재해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대국경일’, 예컨대 개천절(10.1), 광복절(8.15), 제헌절(7.17), 한글날(10.9) 그리고 3·1절이다. 그런데 왜 3·1절만 그냥 ‘3·1절’이라 지칭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차제에 재고 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3·1혁명절’, 혹은 ‘3·1독립절’이라든지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독립운동의 긴 과정은 이러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며 3·1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은 거기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주장에 또한 뜻을 같이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던 청년, 여성 그리고 노동자층이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의 주체로 참여했음”은 이후 우리 사회와 역사 및 새로 세워질 나라의 주체가 누구일까에 대한 잠재적 답안을 제시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1부 발제2 대한민국임정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의 역사를 열다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국민주권과 공화제의 사상은 이미 1880년대부터 개화파들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라는 대한제국 국체가 반포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의 사상은 크게 확산될 수 없었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은 이제 국권회복 이후의 정체에 대해 ‘입헌이나, 전제나’에서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나’로 논의의 구도가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 구도의 변화를 본격화한 것은 1911년에 있었던 중국의 신해혁명이었다.

그러나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1914년 ‘구주전란(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입헌군주제를 상정한 ‘신한혁명당’을 만드는 등 아직 공화제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1917년 4월 미국이 ‘구주전란’에 참전을 선언하여 세계대전의 정세가 크게 바뀌자, 공화주의 쪽으로 돌아섰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1917년 7월의 이른바 ‘대동단결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복벽주의 혹은 보황주의를 주장해오던 유림 출신 의병의 대표적인 유인석이 1915년에, 신한혁명당을 이끌던 이상설이 1917년 3월에 각각 작고한 뒤의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독립운동 진영의 새로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대한제국망명정부’가 거의 거론되지 않고, 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국내외 독립운동 진영이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주요 제국들에서 모두 군

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섰으며, 그 지배하에 있던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당시 국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상해에서 임시정부 조직을 모색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공화국 정체의 수립’은 시대의 대세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문장을 넣은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 중국 측 헌법문서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은 1925년 ‘중화민국 헌법초안(일명 단기헌법)’에서였으며, 이때 공화국의 의미도 ‘연방국(연성국聯省國)’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1919년 8월 11일에 공포된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라고 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19년 4월 임시헌장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도 매우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것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에 두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는 공화국 가운데에는 귀족공화국, 민주공화국, 소비에트공화국 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민주공화국’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만드는 이들이 ‘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선택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지정토론 : 한국독립운동은 태생적으로 국민주권 지향

(장석흥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한국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민족혁명’의 과정이었다. 독립운동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일제를 물리친 뒤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혁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사실은 독립운동 주체들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본군과 싸운 동학농민군, 의병, 그리고 3·1운동, 농민·노동·학생운동 등 독립운동에 참가한 한국인은 대략 500만명에 달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평민 출신들이었다. 그들이 염원한 것은 더 이상 군주가 주인인 대한제국

의 ‘복국’이 아니라 평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다.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은 태생적으로 국민주권을 지향하고 있었다. 즉 구시대를 마감하고 신시대를 열어가는 민족혁명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시로는 독특한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기까지는 그런 독립운동의 역량이 밑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광무황제(고종)을 당수로 추대한 때문에 신한혁명당을 보황주의로 규정하는 것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념과 방략을 분간해 신한혁명당의 이념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구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새롭게 건국한 것이 아니라, 군주제의 대한제국을 혁명적으로 계승해 민주공화제를 수립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가 아닐까 한다.

2부 발제1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현향과 의미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

현재 세계 24개국에서 904개소의 한국독립운동유적지가 확인되었다.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으로서 공간적 세계성을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많은 408개소(45%)의 유적지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원형을 잘 보존하고 복원된 유적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요인 관련 유적이다.

임시정부는 27년의 역사를 지니며, 상해, 항주, 남경(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중경순으로 중국 남부지역을 크게 서행(西行)하며 이동하였다. 임시정부가 거쳐 간 8개 도시 가운데 진강의 임시정부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기강의 유적은 확인되었으나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졌다. 상해, 항주, 장사, 유주, 중경에는 청사(또는 활동지)가 원형대로 복원되었고, 그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의 청사도 최근 확인되어 복원이 논의 중에 있다.

중국 내 임시정부 청사는 1993년 상해 마당로 청사 복원을 필두로 현존하는 건물의 복원

을 완료한 상태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과, 그 직후의 임시정부 청사 복원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 청사 보존을 호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복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전시과정에서 북한을 의식한 중국 측의 요구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변화하였다. 중국이 우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를 복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몇몇 청사나 전시관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복원하고 조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물 고증과 전시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후에 독립기념관이 개입하며 이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중국 태도의 변화는 항일투쟁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과, 경제발전과 '중국굴기(中國崛起)'의 자신감의 발로라 여겨진다.

중국 내 임시정부 청사 복원과 전시관 조성은 모두 한중 공동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중 공동투쟁의 역사와 우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한국과 중국이 과거의 역사적 산물을 현재에 복원하여 미래의 우의를 다지는 증좌로 삼았다는 데에서 그 의미는 크다. 더구나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임시정부 관련 유적의 보존과 복원에 공동 주체로 나선 것은 정치적 함의도 크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하고 있음을 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다. 그 법통의 실체가 존재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내년이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한다. 중국에 복원된 임시정부 청사와 기념관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중요한 항일 역사유적으로 인식하여 각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한중 근대사의 교집합 유적으로서, 또한 세계 평화유적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큰 유적이다. 따라서 복원된 임시정부 청사와 매한 기념관을 포함한 관련 유적(기념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등재 신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정토론 : 임시정부의 역동적 역사를 복원해야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리 정부 또는 독립기념관이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를 우리 마음대로 조사하고 복원하고 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이다.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의 조사와 관리 그리고 복원과 전시는 중국 정부의 현재적 관심과 항상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임시정부기념관 복원 및 관리 그리고 전시사업도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이다' 라는 말이다. 왜? 상해 청사의 전시내용이 항주, 장사, 중경 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청사만을 역방한 까닭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임시정부의 활동(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임시정부 역사(일반성)가 다를 리 없고, 각 청사에 있는 김구 흉상도 똑같이 식상하다는 얘기다. 이들을 보완하여 임시정부의 역동적인 역사를 복원할 책무가 있다.

특히 독립운동의 꽃으로 임시정부와 관련한 무장투쟁에 관한 전시가 부족하다. 임시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무장투쟁 전시를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무관 양성, 의열투쟁, 참의부,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등 피 끓는 무장투쟁의 역사에 대한 전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역할도 찾아내 전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래야만 우리 국민과 중국 인민은 “독립운동가의 꿈과 이상이 현실이 되고, 또 현실이 역사가 되어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를 중국 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터득하게 될 것이다.



2부 발제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활동을 기리는 기억과 추모의 장인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념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 이후 대한민국 100년 역사가 주는 감동을 전달하는 곳이어야 한다.
- 기념관은 새로운 세상을 이뤄내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광복군 포함)에 참여하거나 뜻을 함께 한 수천, 수만 명의 선열들 한 분 한 분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들 모두를 함께 기념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기념관은 몇몇 지도자만을 위한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 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 모든 국민을 ‘건국의 영웅’으로 기념하는 곳이어야 한다.

- 기념관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따른 우리 민족의 수난 자체를 보여주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그러한 수난을 극복해내고자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했던 독립투쟁의 의지와 새로운 나라를 향한 그들의 꿈을 보여주는 밝고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
- 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뤄내고자 했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통일 시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곳이 된다. 아울러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졌던 새로운 나라를 향한 방략을 되살려 그 100년 역사를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비전의 장소도 될 수 있다.
- 기념관은 외관에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졌던 민주,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및 통합의 상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레지스탕스(Résistance), 세계를 향한 저항



황 현 지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재학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주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며 9월 6일 오후 4시,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는 ‘2018 레지스탕스영화제’가 서울 돈화문로 서울극장에서 개막했다. 영화제는 개막작인 <알제리전투>(1966)의 상영으로 그 막을 열었다. 보통 개막식을 먼저 하는 기존의 영화제와는 조금 다른 순서였다.

올해 처음 열리는 레지스탕스영화제는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열린 행사이다. 영화제는 서울극장에서 14개국 작품, 총 18편을 선보였으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이종찬 위원장,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서울시310시민위원회 단장, 여성독립운동가 조용제 여사의 손녀인 김상용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 사회는 배우 김규리가 맡았다.

상영작들은 크게 네 종류로 구성되었다. 제국주의에 맞선 세계사 속 투쟁을 그린 영화,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제국주의로 인한 전쟁과 그 후유증의 잔혹함을 그려낸 영화, 마지막으로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담은 영화들로 구성되었다. 레지스탕스 영화제답게 반제국주의, 반식민해방투쟁을 담은 영화들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며 열린 영화제라는 정체성을 상영작들로 잘 느낄 수 있다.

‘레지스탕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저항’을 뜻하는 단어로, 본디 파시즘 정권에 대한 저항, 혹은 프랑스인민의 독일점령군과 비시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가 팽배했던 19세기, 알제리 또한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의 희생자였는데, 알제리는 183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1963년까지 약 120여 년 이상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개막작 <알제리전투>는 그 1954년에서 1963년까지 9년간 이어진 알제리 민족해방투쟁을 다룬 영화인데, 그런 영화를 프랑스어인 ‘레지스탕스’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택한 것은 식민지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른 열강들의 모순을 꼬집는 작품선정임이 아닐 수 없다.



티켓부스

개막작을 통해 본 알제리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한 민족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학살하는 끔찍한 일들이 최근까지도 자행되었다. 식민지배로 인한 피지배국들의 고통은 비단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다. 피식민지국의 피를 양분 삼아 자라난 열강들의 눈부신 경제성장,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존중심이라곤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철저한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마구 그어진 국경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파생되고 있는 새로운 갈등과 전쟁들. 이 비극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현재 우리나라 역시 그 비극 속에 있다.

대다수의 피식민지 국가들이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선진국’ 경제 수준에 도달해냈다. 이 기적적인 경제회복 및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후손들이 현재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족반역자들은 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재산을 거둬들일 수 있었

고, 그 재산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민족반역자의 후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복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빈곤하고, 민족반역자는 부유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실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현세대, 나아가 미래 세대는 결코 애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해봤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좋을 일이 없다는 현실을 이미 목격했는데, 누가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려 하겠는가? 이렇듯 부당함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고,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친일민족반역자 청산을 통해 제국주의의 잔재들을 완전히 바로잡고 뿌리 뽑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민족정신 고취, 정의 실현, 애국실천일 뿐만 아니라, 세계열강들의 모순점과 잘못을 지탄하고,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범인류적 행동이다. 그 행동에 있어서, 레지스탕스영화제와 같은 문화축제를 통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문화축제로 대중들에게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꾸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요약하자면 문화로써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한다는 말로, 백범 김구 선생은 이미 문화가 가진 힘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범인류적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일찍이 ‘문화’를 제시한 것이다. 제1회 레지스탕스영화제는 문화로써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며, 문화대국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개막식 개막공연

러시아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녀와서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지역 개관

러시아 한인사회는 1863년 함북 거주민 13가구가 연해주 지신허로 이주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1900년을 지나면서 10만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들은 연해주(프리모리 주)를 비롯한 하바롭스크 주, 아무르 주, 바이칼 호수 일대 등 시베리아 동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조선왕조의 봉건적 지배체제를 탈피하고자 한 일부 조선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 일대로 계속 이주하였다. 크라스키노(연추), 빨치산스크(수청·수성), 우수리스크(추풍·소왕령·소황령)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러시아인들도 놀랄만한 노력과 강인한 끈기를 기반으로 이주민들은 늪지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와 옥답으로 만들었다. 러시아인들은 이들의 ‘친절·예의·근면’에 주목하였다.

생계형 이주와는 달리 1910년 국권상실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항일 민족운동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러시아로 망명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는 민족 신문과 잡지를 간

행하였고, 남부 연해주 지역에서는 최재형·이범윤·안중근·홍범도 등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 조선 북부로 들어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의 집중적인 모금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하바롭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한인들은 조선의 독립 달성과 극동의 일본군은 물론 반혁명파인 백위군과 대항하기 위해 소비에트와 공동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바롭스크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인 한인 사회당의 결성과 이를 이끌던 이동휘, 여성사회주의자 김 알렉산드라, 카프 소설가 조명희 등이 활동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 지역을 무대로 살아가면서 활동하던 조선인들은 1937년 스탈린정권에 의해 강제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되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는 홍범도·계봉우·최봉설 등 항일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이주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번 제14기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 탐사단의 답사지역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州) 일대로 독립운동 유적지는 물론 한인 활동 거점지역, 강제이주 집결지 등을 찾아보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일정과 내용

1일차(7월 19일 · 목) 출발

대학생들과 일반인의 혼성팀 총 34명으로 구성된 제14기 독립정신 탐사단의 사적지 답사 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6일간이었다. 그러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동하는 날이므로 실제 답사는 4일에 걸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단원들과 상견례를 마치고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으로 들어가 크라스키노와 가까운 자루비노 항 인근 숙소인 오케안 호텔에서 묵었다. 이곳을 숙소로 잡은 이유는 첫 행선지인 크라스키노 즉, 연추 인근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2일차(7월 20일 · 금) 연추와 목허우

본격적인 답사는 안중근(1879~1910) 의사의 활동지인 크라스키노 즉, 연추(延秋)의 단지 동맹(斷指同盟) 기념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러시아에 머물던 기간은 1907년 가을부터 하얼빈 의거가 있던 1909년 10월까지 약 2년 정도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기간을 러시아

고려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연추(안치허)에서 생활하였다. 안 의사는 엄인섭 등 연해주 의병 동지들과 함께 1908년 7월말 이곳을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의 경흥과 신아산으로 진출하여 일본군을 격퇴하는 국내진공작전을 단행한 바 있었다. 탐사단원들은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단지동맹의 원명은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로 1909년 2월 26일 이곳 연추 하리에서 안중근은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약지를 잘라 의병운동을 제기하고자 결사 동맹을 맺었다. 지금의 기념비는 벌써 세 번째 자리를 옮긴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활동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답사지는 핫산전투 기념상이었다. 크라스키노 중심부 야산에 위치한 것으로 우리에게 는 장고봉(張鼓峰)전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중일전쟁 이후 연해주까지 넘보던 일본군과 소비에트 러시아군 간 전투의 영웅인 크라스킨 중위와 러시아 군인들의 전투를 형상화 한 것이다. 기념비문 제목도 ‘핫산의 영웅들’이라고 되어 있다. 원래 주요 전투현장은 두만강 하류의 북한-러시아-중국 3국의 국경지역 즉, 현재의 핫산역 앞에 있는 핫산 호수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인 장고봉의 전투가 유명하다. 당시의 묘사가 남아 있고 하산역 구내에도 기념비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핫산호 전투라고도 한다. 이 핫산전투 기념상에 오르면 연추 전체 모습과 새로 발견된 바닷가의 고구려·발해성터, 포시예트 원경은 물론 중국 훈춘으로 가는 길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오후에는 포시예트 항구를 찾았다. 1855년 ‘러일화친조약’, 일명 ‘시모다조약’에 참여한 러시아 무관 포시예트의 이름을 딴 항구다. 이 항구는 원래 군항으로 사용해서 러시아 당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 올 수 없던 지역이었다. 개인적으로 네 차례 이 지역을 왔는데 처음과 두 번째에는 몰래 산으로 들어가서 숲속에서 원경을 찍는데 그쳤다. 이번 답사 때는 완전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단지 석탄저장고로서의 역할만 하는 듯하다.

이 항구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연해주 조선인들의 지도자인 최재형이 이곳을 거점으로 러시아 군대에 소고기와 곡물·가죽 등을 거래하는 회사를 차려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것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게 것도 바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안중근 의사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갈 때 바로 이곳 포시예트 항에서 배를 타면 반나절 만에 갈 수 있었다 한다. 당시 우리 동포들에게는 목허우(木許隅)로 알려진 포시예트는 ‘연추의 인후(咽喉)’로 마치 중국 다렌의 뤄순(旅順)항과 유사해 보이는 천혜의 요충 향이자 조선인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촌락이었다. 포시예트 항을 나오면서 왼편으로 향토박물관이 있다. 이곳은 과거 이 지역에서 활동

했던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목허우 거주 고려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조각과 맷돌, 당시 사용하던 농기구 등도 비치되어 있다. 원래 개방되어 있었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관리도 되지 않아 자물쇠를 채워놓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우수리스크 숙소로 가면서 최초의 이주민 정착촌인 지신허(地新墟) 입구와 연해주의 또 다른 한인마을 터이자 유인석 등의 13도 의군 집결지인 바라바쉬(원래의 이름은 ‘몽고가이’로 고려인들은 ‘맹고개[孟古介]’ 등으로 부름) 일대를 잠시 둘러 보았다.

3일차(7월 21일 · 토) 소왕령

이날 오전 행사는 우수리스크의 고려인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서 두 가지 주제의 강의가 각각 1시간 정도씩 진행되었다. 이만열 교수의 강의 제목은 ‘이동휘 선생,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고, 나는 ‘122년 전 한국인의 세계일주와 시베리아 횡단’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 교수는 수십년 동안 한국독립운동을 연구하신 최고의 원로사학자로서의 연륜에 걸맞게 차분하면서도 뚜렷한 메시지로 이동휘 선생의 독립운동사에서의 역할과 위치·의미 등을 설명해주셨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아관파천 시기의 정치상황과 특명전권공사 민영환 일행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을 참석하고 돌아오는 유라시아 일주 과정과 그들이 보고 느낀 내용을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다음 답사지는 최재형 선생이 마지막 거주하던 집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최재형(1858~1920)의 러시아 이름은 최 표트르 세묘노비치(ЦойПётр Семёнович)로 일명 ‘최 빼치카’라고 한다. 연해주 고려인들이 친숙한 단어로 이렇게 불렸다. 함북 경원 출생으로 1869년 아버지 최형백이 연해주 지신허에 정착하면서부터 러시아 생활이 시작되었다. 1871년 가출한 그는 포시예트 항에서 러시아 선장 부인의 도움으로 이후 6년간 상선에서 지내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왕래하였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연추로 되돌아온 이후 건설청부업과 군납업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업가로 변신하였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연해주 의병에게 무기와 양식·피복은 물론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였고, 『대동공보』 사장, 권업회 회장 등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연해주 한인사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하였다. 러시아혁명 이후 1917년 안치허 집행위원장으로 연해주 해방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1918년 우수리스크로 이사하였는데, 이 무렵 니콜라예프스크(니항) 사건을 구실로 1920년 4월 4일 일본군이 연해주 전역에서 소비에트 적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고 우수리스크로 접근하는 등 이틀간 대대적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를 ‘연해주 4월 참변’이라고 한다. 최재형은 4월 6일 이 집에서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가 총살 처형되었는데

매장지도 확인할 수 없다. 연해주 거물 독립운동가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그 다음은 전로한족중앙총회 결성장소를 찾았다. 최재형 거주지와는 멀지 않은 곳이다. 함북 경원 출신 문창범(1872~?) 등의 주도로 1918년 6월 우수리스크 이곳에서 러시아 한인들의 중심적인 대의기구인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결성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5일 대한국민의회로 개칭되었다.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 전후 국내외에서 생겨난 여러 임시정부 중 가장 먼저 조직된 기관으로 이후 연해주의 3·1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문창범은 1919년 4월 임시정부 교통총장에 추대되었으나 부임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건물은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탐사단원들에게 큰 감명을 준 것은 우수리스크 시 교외 레르몬토바 거리 외곽 라즈돌리노에 강(일명 수위푼 강으로 우리에게 ‘추풍강’으로 알려진 곳이다) 변에 위치한 이상설 선생 유허비일 듯하다. 이 비석은 1910년대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였던 이상설(1870~1917)을 기념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조성한 것이다. 충북 진천 출신인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은 고종황제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파견한 3인의 한국 대표단(이상설·이준·이위중)의 정사로서 활약했으며 성명회·권업회·신한혁명단 등을 조직하였고 한때는 국내진공작전과 고종의 국외망명도 준비하였다. 1910년대 이후 우수리스크에 거주하였다. 1917년 3월 48세로 병사 순국하였는데,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과 남긴 물건들은 이 강변에서 불태웠다. 항상 급하게 흐르는 라즈돌리노에 강과 강 건너편 발해성터를 바라보면 망국의 서러움과 중년 독립운동가의 시름이 절로 느껴진다. 그간 찾는 발걸음이 드물던 이곳도 지금은 러시아 무비자 관광이 개시된 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둘러보는 곳으로 바뀌었다.

발해성터 전경을 본 후 우수리스크 시내에 위치한 고려사범전문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는 1918년 우수리스크 한족회 주도로 설립된 중등학교인 조선인사범학교가 1926년 고려교육전문학교로 승격되었고 이후 1936년까지 10년 동안 교원 244명을 배출하였다. 그 당시에는 소왕령 고려인사범학교, 소왕령 조선사범학교, 소왕령 고려전문학교 등으로 불렸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7년제 학교의 교사자격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집행으로 카자흐스탄 카잘린스크로 이전하였는데, 1938년 6월 폐교로 더 이상 발전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930년 포시예트,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인사범학교 설립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프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조명희가 망명 이후 이 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한인사회당 지도자 박진순의 사위 김원섭도 이 학교 학

생이었다. 현재는 무용과 발레 등을 교습하는 문화학교로 바뀌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육성촌(六城村)’으로 잘 알려진 우수리스크 외곽 뽀칠로프카 옛 고려인 마을이다. 일찍이 1880년대 중반 조선정부의 특명으로 김광훈·신선옥 등이 상세하게 실지조사를 거쳐 상세하게 작성한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라는 기록에 의하면, 추풍3사(秋豐三社)의 하나이자 가호 274호, 인구 2,827명의 거대 집단부락을 형성하였던 곳이다. 문창범과 조명희가 거쳐 간 곳이기도 하다. 1937년 이후 주거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당시 거주하던 한인들의 발자취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지세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 동산과 논밭 모습을完전히 느낄 수 있다. 마을 중심부에는 폐허로 변한 초등학교 건물이 덩그러니 다소 을씨년스럽게도 보이지만, 당시 이곳에 들어온 일본 유학생 출신 조명희 선생이 진지하게 강의하고 함경도에서 부모를 따라 건너 온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4일차(7월 22일 · 일) 하마탕과 해삼위

라즈돌리노에 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답사 일정이다. 1863년 음력 12월 무산과 경흥의 13가구 두만강을 건너 국경마을 지신허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자들은 연해주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업 종사하거나 블라디보스토크 군항 건설과 시베리아 철도 부설에 노동자로 활동하였다. 연해주는 1905년 러일전쟁과 1910년 국망 전후 해외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하여 1919년 3·1운동 때까지 서·북간도와 쌍벽을 이루는 해외 중심 기지가 되었다. 또한 신한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집단거주지를 개척하고 러시아 당국과 협조하면서 1930년대까지 고려인사회의 위상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1937년 8월 21일 스탈린이 고려인 강제이주를 결정하면서 마을들은 폐허로 변하게 되었다. 강제이주 집행 전후로 조명희 등 지도자급 인사 2,500여명을 숙청·학살하였고, 9월 이후 17만 고려인들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이었는데, 스탈린은 소련거주 고려인들을 일본에게 협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러시아 당국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이주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비용지불과 보상이 전제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행선지도 알지 못하는 강제이주는 9월 9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연추의 중간에 위치한 연해주 철도 교통요지인 이곳 라즈돌리노에 역에 대부분 집결하여 출발하였다. 이 지역의 본래 이름은 ‘하마타나’, ‘하마탕(蝦蟆宕)’이었다. 당시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일대에서 총 이동한 가구는 3만6,442호이고 인원은 17만1,781명

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16,272호, 7만6,525명, 카자흐스탄 20,170호, 9만 5,256명이었다. 타쉬켄트·우쉬토베·크즐오르다 등지로 옮겨져 첫해 겨울은 땅굴이나 움막을 만들어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노약자들 다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다. 한때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를 구가하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도 현재는 구소련 연방 해체와 국가별 민족주의 고조 등 정치적 상황변화, 언어장벽, 노령화 등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의 디아스포라는 언제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블라디보스토크(海蔘衛·浦鹽斯德)로 들어와 신한촌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탑과 이동휘 선생 거주지, 서울스카야 2A거리를 찾았다. 먼저 하바로프스카야 26A에 있는 이 기념탑은 러시아 연해주 신한촌을 기념하기 위해 연혁과 역사적 의의를 화강암 조형물로 새긴 것이다. 1999년 8월 15일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가 건립하였다. 한글과 러시아어로 신한촌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기록한 기념탑 건립에 중심적 역할을 한 연구소 관계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만열 교수가 이 탑을 건립할 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비문 뒷면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사자인 이 교수님으로부터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념탑문의 내용 가운데 신한촌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성명회와 13도의군 등의 독립운동 사실이 신한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 일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동휘(1873~1935)가 거주하던 집터인 하바로프스카야 20번지를 찾았다. 이곳은 사망할 때까지 말년을 보내던 집이다. 함경도 단천 출신인 그는 서울로 올라와 이용익의 소개로 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여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될 때 참령으로 강화진위대를 이끌고 있었다. 이후 이동녕·안창호 등과 구국계몽단체 신민회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펼쳤고, 1911년 윤치호·양기탁 등과 함께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석방 후 1915년 러시아로 망명하여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였다. 19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한인사회당의 대표자회의가 열리자 박진순·박애·이한영 등을 사절단으로 코민테른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말경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1921년 한인사회당 명칭을 고려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이동휘는 반일민족독립운동의 숙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소련정부와 제휴한 민족주의적 혁명운동가였다. 당시 거주지는 ‘엘레나’라는 상점으로 바뀌었다.

다음 행선지는 신한촌 ‘서울거리[СЕУЛЬСКАЯ] 2A’였다. 이 지번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한인들이 이곳 서울스카야 일대에서 모여 살았음이 확인된다. 1911년 러시아 당국이 콜레라의 근절을 명분으로 현재의 빠그라니치나야 일대 ‘구개척리’의 한인마을을 강

제로 폐쇄하고, 러시아 기병단의 병영지로 삼았다. 신한촌은 새로운 한국을 부흥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신개척리’라고도 불렸다. 아파트에 둘러싸인 개인소유의 이 단독건물은 현재의 지번 그대로 최근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 집을 제외하면 한인들과 관련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세계적 배우였던 올 브린너 생가와 이 지역의 대표 박물관인 아르세니예프 향토박물관을 들른 후 고려사범대학 건물을 찾았다. 시내의 오케안스카야 프로스펙트(구 키타이스카야) 18번지에 위치한 청회색 외벽의 3층 건물로 1931년 연해주 한인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된 조선인 대학이었다. 원동 고려사범학교, 해삼위 고려사범학교로도 불렸던 이 학교는 1935년 첫 졸업생 17명을 배출하였고, 학교 내에 단기과정의 노동학원을 부설하였는데, 1934년 5월 당시 고려사범대학에 158명, 노동학원에 265명의 노동자·농민 출신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이후 당시 소장도서와 자료들은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로 옮겨졌으며 일부가 알마타의 푸쉬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는 크질오르다에서는 1938년 사범대학으로 바뀌었으나 이후 소련식 국가학교로 재편되면서 명맥도 끊어졌다. 최근까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은 현재 러시아 민영은행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은 시내 중심부 아무르만에 접해 있는 한인들이 처음 이주하여 거처했던 구한촌, 빠그라니치나야 옛 ‘개척리’ 일대를 돌아보고 구 극동대학 구내에 있는 카프문학 시인이자 소설가·극작가로 활동했던 진천 출신의 조명희 선생의 기념비를 찾았다. 빠그라니치나야는 현재 러시아인 거리로 완전히 바뀌어 한인들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처럼 ‘블라디보스토크 아르바트’로 불리는 변화가로 변모하였는데 최재형이 잠던 집의 표지만 남기고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과정에서 공개재판도 없이 이른바 ‘반역죄’로 억울하게 처형된 조명희를 기리는 기념비는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최근 설치한 것이다. 이날 저녁에는 하바롭스크로 가는 밤 열차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 시베리아횡단열차의 종착점이자 시발점인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하바롭스크는 약 800여 Km 정도이고 모스크바까지는 9,288Km로, 역 플랫폼에 ‘9,288’ 이정 표지가 세워져 있다.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는 논스톱으로도 총 7일간의 긴 여정이니, 우리의 일정은 ‘가까운’ 대도시 간으로는 단기간인 셈이다.

5일차(7월 23일·월) 허발포

11시간 정도 걸려서 오전 8시 30분 무렵에 하바롭스크(許發浦·許發營) 역에 도착했다.

역 앞 광장에는 17세기 이 지역을 처음 개척했던 엘로페이 하바로프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하바롭스크 자치주와 시도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그는 담비 가죽을 얻기 위한 모험상인이자 탐험가로서 험난한 여정을 거쳐 이곳에 도착하였다. 우랄산맥을 넘고 시베리아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하바로프는 많은 원주민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전염병을 퍼트리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선구적인 동방개척자로서의 위상만이 강조되는 듯하다.

사적지 답사는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볼로차예프카 전투 희생자 추모기념물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기념물은 1922년 2월 11일부터 12일의 전투에서 희생된 118명의 빨치산들의 추모를 위한 것이다. 이곳의 지명은 ‘이운코란’으로 하바롭스크에서 유태인 자치시인 비로비잔 가는 방향으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1922년 2월 11일 볼로차예프카 전투에 인민혁명군 제6연대에 소속된 이용 부대, 제5연대에 소속된 김치준 부대가 참가하였다. 이 전투는 인민혁명군이 2월 11일 저녁 이후의 전투에서 이운코란 산을 점령한데 이어 볼로차예프카 마을과 역을 점령함으로써 하바롭스크 해방의 결정적 기반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 한인들도 참여하여 많이 희생되었다. 비문에는 “이곳에는 볼로차예프카 요새를 돌격함으로써 원동에서 소비에트의 승리를 위해 백위파와 간섭자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최후를 마친 118명의 전사들이 잠들어 있다. 1922년 2월 13일 영웅들에게 영광이 있기를”이라고 쓰여 있다. 한인빨치산도 12명이 전사하여 러시아인 30명과 함께 이운코란 산의 기슭에 합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비문에는 한인들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조형물과 비문, 추모를 위한 작은 건물, 원동 독립군대 사령관 콘스탄치노비치 부르헤르를 추모하여 하바롭스크 노동자들이 바친 두상 등이 있다.

오후 일정은 하바롭스크 시내였다. 먼저 칼리나 거리 15번지의 한인사회당 창당지이자 조선인 민회회관 터이다. 이곳은 19세기 후반부터 하바롭스크 거주 조선인들의 ‘도소(都所)’였다. 1896년 가을에 민영환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이곳 도소를 들른 일이 있었다. 그보다는 1918년 5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탄생한 곳으로 더 유명하다. 구성원은 이동휘를 비롯하여 박애·이한영·김립·오하목·오성목·이인섭·김 알렉산드라 등이다. 대회는 소비에트러시아와 연대와 반일·반제국주의의 사회주의 강령을 채택하고 중앙위원들을 선출하였으며 조직·선전·군사 등 주요 부서를 구성하였다. 당 기관지로 『자유종』을 발간하였다. 1919년 10월 한인사회당은 상해 임시정부 참여를 통하여 민족혁명세력과 제휴하였다. 그러나 1920년 ‘4월 참변’에 의해 연해주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적군이 장악하고 있는 아무르 지방으로 본부를 이동하였다. 현재 당

시 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빈터로 있다. 바로 옆 칼리나 거리 27번지에는 『자유종』을 비롯한 선전물을 출판하던 보문사 소재지가 있다.

다음은 칼 마르크스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빨치산 희생자 추모 기념탑을 찾았다. 1918년 9월 16일 한국인 최초의 여성 공산주의자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타케비치(1885~1918)가 처형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1918년부터 1920년 시베리아 내전 당시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백위파와 외국 간섭군에 의해 처형된 곳으로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렸다. 이를 기리기 위해 러시아 당국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항상 기억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어서 하바롭스크 시립묘지를 답사하였다. 이곳은 같은 칼 마르크스 거리 입구 공항 방면에 위치한 곳으로 단순한 공동묘지라기보다는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 처형된 러시아인 및 채소 한인들이 묻혀 있는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조명희 등 한인지도자들도 이곳에 묻혀 있었다. 원래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는 조명희를 기리는 큰 석판 상이 입구에 있었다. 여기에는 그의 얼굴이 음각으로 부조되어 있고 “뛰어는[난] 조선작가 1894~1938 54세”라는 국문 다음에는 러시아어로 “조명희, 소비에트 고려문학의 기초를 세운 뛰어난 고려인 작가 1894년에 태어나 1938년에 총살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이 비석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입구에 있는 추모기도소는 1990년 하바롭스크 기념사업회 주도로 인민 기부금으로 건립한 것이고, 그 옆에 검은 대리석으로 당시 확인된 사망자 명단이 모두 적혀 있다. 이 명단에는 조명희 외에도 ‘김·박·이·최’ 등 한인임을 알 수 있는 성과 이름이 다수 보인다.

늦은 오후에 시내 중심지인 무라비예프 아무르스카야 거리 22번지에 있는 김 알렉산드라가 활동하던 건물을 찾았다. 원래 이 건물 모퉁이에 그녀의 얼굴이 작은 원형 동판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공사 과정에서 철거되고 그 옆에 새로 그녀가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일하던 건물이라는 명판이 만들어져 있다. 함북 경흥 출신인 그녀는 하바롭스크에 도착하여 소비에트 및 당 위원회에서 일하였으며, 하바롭스크 볼셰비키 당의 서기 겸 재무를 담당하였다. 하바롭스크 소비에트 위원회의 외교위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1918년 8월 연합군과 백군이 하바롭스크에 도착함에 따라 9월 10일 ‘바론 고르프’ 호로 아무르 강을 거슬러 퇴주하게 되었는데, 이 배에 김 알렉산드라가 타고 있었다. 그러나 상류로 올라가는 도중 배가 백군에게 나포되었다. 마지막 심문에서 한인이면서 왜 러시아 내전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볼셰비키요, 나는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압박 민족의 권력인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싸워왔고 또 싸우고 있소. 나는 조선인민이 러시아인민

과 같이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에 도달할 때에만 국가의 자유와 독립이 얻어질 수 있다고 확신 하오!”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그녀에 대한 연극·시·소설 등도 다수 간행될 정도로 한국인 여성 혁명가로서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날 저녁 답사단의 밤 및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선생님 몇 분과 밤 산책 겸해서 아무르 강변 전망대에 있는 니콜라이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1809~1881) 동상을 찾았다. 그는 오랜 기간 동시베리아 총독을 역임하면서 청국과 ‘아이훈조약’을 맺어 중국 명 흑룡강, 러시아 명 아무르 강 이북을 러시아 소유로 하여 영토를 확장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아무르 강, 아무르 주도 그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원 조금 못 되는 최근 만들어진 러시아 최고의 고액권인 5천 루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하바롭스크와 연해주 지역에 부쩍 공을 들이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6일차(7월 24일 · 화) 귀국

하바롭스크 공항-블라디보스토크 공항-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인천공항 순으로 무탈하게 되돌아 왔다.

마치며

이번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점에 살고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었고, 누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에게는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이모였을 것이다, 눈을 질끈 감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훨씬 많았고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강점과 식민지 상황을 기회로 삼고자 하는 군상들이 활개를 치던 당시 그들은 비루하게 살기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대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안중근의 청년정신, 최재형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상설과 이동휘의 조국애와 독립정신, 김 알렉산드라의 불꽃 같은 인생 등등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좋은 기회였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뇌리에 떠오른다. 그러나 이동휘 선생 외에 다른 분들은 육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기에 그만

큼 아련한 마음도 남는다. 그간 몇 차례 오고 갔던 곳도 다시 들르면 항상 설레고 새롭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만열·반병률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답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애쓰신 이일선 처장님, 조용하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정흠 간사님과 6일간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동고동락한 선후배 선생님들, 발랄하면서 항상 진지했던 학생 탐사단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1. 안중근의사 단지동맹기념비
2. 안중근의사와의 교감
3. 조재곤 교수님의 강의에 귀 기울이는 답사단원들
4.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바라 본 풍경
5. 원하는 포즈대로~화기애애한 선생님들과 1조
6. 러시아 땅을 두 발 아래!
7. 들어갈 수 없는 지신허 마을 입구에서



8. 포시엣 항구에서 다 함께
9.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 거주지 앞에서
10. 독립군가 열창하며
11. 이만열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답사단원들



12. 전로한족중앙총회 결성 장소에서 의미를 되새기며

13. 4월 참변 추모비

14. 방치된 상태인 조명희 선생이 교편을 잡던 뽀질로프카촌의 청년학교



15. 이상설 유허비

16. 발해성 터 위에서

17. 태극기와 함께 한 학생단장과 엄지 척 2조!

18. 고려사범전문학교의 기운을 받아

19. 신한촌기념탑에서 두 교수님과 훈훈한 3조

20. 새롭게 정비된 서울스카야2A거리 표지판



- 21. 고려인 강제이주의 아픔이 서린
라즈돌노예역에서
- 22. 한인이주 150주년기념비에서
- 23. 수풀에 둘러싸인 조명희 문학비
- 24. 대지의 기운을 받아



- 25. 독수리 전망대의 멋진 풍경을 담아
- 26. 열차를 기다리며
- 27. 빨치산희생자 추모 기념탑 앞에서
- 28. 볼로차예프카 전투 희생자 추모기념물
앞에서
- 29. 김알렉산드라 활동지에서



- 30. 아무르강 위에서 사이좋게
- 31. 골든벨 최종 우승자는 누구?
- 32. 열연이 빛나는 3조의 연극
- 33. 답사단의 밤 우수 조 1조!
- 34. 답사단의 밤 함께 즐기는 선생님들
- 35. 사이좋은 2조의 수료증 인증샷
- 36. 철도 위의 비틀즈



- 37. 파이팅!
- 38. 우아한 비엘만 스피드
- 39. 기차가 되어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독립운동 이야기

-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답사 기행문 -



김 성 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1. 러시아 연해주로 가는 길(6월 29일, 7월 19일 : 첫째 날)

우리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어떤 나라일까? 러시아 이전의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나라로 자유진영의 미국과 힘을 겨루며 냉전체제를 이끌어갔다. 냉전 속에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체제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 러시아(소련)에 대한 관심은 멀어졌다. 이는 자연스럽게 역사로 이어지면서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했던 독립 운동가들보다 민족주의나 우익계열의 독립 운동가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 편향적인 역사적 사실은 점차 균형의 추를 맞춰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좌익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기억하는데 인색하다. 세계적인 냉

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의 냉전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정권마다 바뀌는 남북관계 때문에 그 지속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현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사에서도 러시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북경조약으로 러시아는 조선과 처음 국경을 접하였고 이후 조선에서는 아관파천과 러일전쟁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에 러시아는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펼쳤던 무대 중 하나였다. 구한말부터 연해주에 이주하여 이곳에 터를 잡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 기지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 연해주였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러시아 지역의 한인독립운동은 소주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단순한 사실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은 만주와 중국에 있었던 국외 독립운동의 부속처럼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속에서 러시아의 한인 독립운동은 여전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시작된 독립정신 답사단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대한 섀렘 반과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사에 대한 기대 반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독립운동을 머릿속에 새기고 본격적으로 5박 6일 간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떠나 본다.

처음 이 답사를 지원했을 때만 해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과연 내가 선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큰 기대는 접고 있었다. 선발되면 가고 안 되면 언젠가 한 번 자유로이 떠나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원서를 내고나서 한 달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다.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답사단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확인하였다.

답사 출발 20일 전, 서울에서 답사 사전 세미나가 열렸다. 6월 2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와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연해주 지역에 대해서 생소하게 다가왔다. 스쳐지나간 기억만 더듬어도 내가 아는 것 말고도 정말 많은 독립운동이 연해주에서 일어났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움은 부족했다. 이러한 자책 속에서 러시아 답사에 대한 나의 기대감은 과연 내가 이 답사를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가득 차버렸다.

답사 세미나와는 별개로 이 자리는 답사단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었다. 나는 1조 배정되었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다. 각 조별로 답사 때 발표할 주제를 선정하고 세미나 일정을 마친 뒤 답사단원들은 20일 뒤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헤어졌다.



자루비노 해변

7월 19일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인천 국제공항에 다시 모였다. 공항에 도착하자 20일 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답사 세미나에서 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다. 조금은 서먹하였지만 다들 인사를 나누고 각 조별로 배부된 물품을 받고 출국 수속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라섰다. 인천공항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두 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직선거리 상으

로 가깝지만 우리나라 비행기는 북한 때문에 중국으로 우회하여 가거나 동해상으로 일본까지 가서 우회해서 가야한다. 그래서 비행시간이 직선거리에 비해서 긴 편이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상황인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답사단은 곧바로 버스에 탑승하였다. 우리의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하산스키 군의 자루비노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세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첫째 날 숙소인 자루비노 해변가 리조트에 도착하였다. 첫날은 주로 이동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답사 일정은 없었다. 리조트에서 잠시 개인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일정에 대해 사무처장님의 전달사항을 듣고 단원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뒤풀이를 하였다. 이렇게 러시아에서의 하루가 지나갔다.

2. 안중근 의사의 혼이 깃든 곳, 크라스키노와 포시엣 항구(7월 20일 : 둘째 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되었다. 기상 후 조식을 마친 후 버스에 탑승하여 자루비노에서 조금 떨어진 크라스키노로 이동하였다. 연해주 지역의 도시 이름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하고 모두 생소한 도시들이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독립운동을 다루는 지역을 보면 크게 간도(만주)와 중국, 아메리카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가 있다. 연해주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만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한 연해주의 다른 도시들이 독립운동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첫 답사지는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였다.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들과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조직하고 다같이 왼손 무명지를 잘라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다졌다. 기념비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흔히 우리가 본 교과서에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후에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것으로만 그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시작점이 바로 이 크라스키노인 것은 잘 알지 못한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고 있었지 과정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크라스키노에 세워진 단지동맹기념비는 이곳까지 오게 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원래 이 기념비는 하연추라고 불리는 추카노보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이 지역 진출기업인 남양알로에가 힘을 합쳐 남양알로에 농장 부근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처음 옮긴 곳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수비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다시 한 번 관리의 어려움에 처해지자 이것을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긴 것이다.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왼손바닥이 찍힌 두 개의 검은색 기념비와 15개의 돌 조형물이 같이 설치되었다. 특히 15개의 돌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을 때 이야기한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뜻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

안중근 의사의 뜻을 다시 새겨보면서 이곳에서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발대식을 치렀다. 발대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곳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았다. 지난날 안중근 의사와 11명의 동지들이 조국 독립에 뜻을 한데 모아 결사한 것처럼 14기 답사단도 이곳에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이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를 살펴보고 기억할 뜻을 한데 모았다.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를 뒤로하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크라스키노 전망대였다. 크라스키노 전망대에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긴 소련이 세운 핫산전투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 답사단은 이 핫산전투기념비보다 이곳 전망대에서 한눈에 보이는 크라스키노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조재곤 교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답사단은 교수

님께서 나눠주신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와 함께 당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던 조선인 마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아민촌(我民村)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크라스키노의 옛 지명인 ‘연추(煙秋 혹은 延秋)’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크라스키노 전망대(하산전투기념비)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연추 일대

크라스키노 전망대 주변 지역은 벌판과 바다와 접해있는 지형이기에 이곳에서는 모든 지역이 한 눈에 들어왔다. 교수님의 설명과 나눠주신 옛 지도를 보면서 과거 우리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을 가늠해보면서 전망대 주변을 한동안 둘러보았다. 또한 이 부근에는 발해의 옛 염주성이 위치해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였다.



목허우 지도와 포시엣 항구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포시엣 항구였다. 아국여지도에서 이곳이 ‘목허우(木許隅)’라는 지명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 이주한 한인들이 불렀던 명칭이었다. 이 항구는 한인들이 최초로 연해주 땅에 이주하여 도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동한 곳이라

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곳 크라스키노와 포시엣 항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한 과정이 묻어난 지역들이다. 안중근 의사는 단지동맹기념비에서 조국 독립 의지를 다지고,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연추를 보면서 조국 독립을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끊임없이 사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곳 포시

엣 항구에서 배를 탔다. 11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 답사단은 안중근 의사의 길을 같이 밟으며 그를 뒤쫓아 가고 있다.

이곳 일정을 마치고 답사단은 우수리스크로 이동하였다. 그전에 우리는 한인 최초의 연해주 정착지였던 지신허(地信墟 혹은 地新墟) 마을과 13도의군 창설지를 둘러보았다. 지신허 마을은 1863년 러시아에 최초로 한인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이다. 연추와 더불어 러시아 연해주 한인 사회의 중심 마을로 발돋움하였지만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우리 답사단이 갔을 때는 마을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이곳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통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을에 세워진 기념비를 확인하지 못하고 마을 입구 앞에서 교수님의 간단한 설명만 듣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지신허 마을 입구



지신허 마을로 들어가는 길

다음 목적지는 13도의군 창설지였다. 이곳은 따로 내려서 보지는 않고 버스 안에서 창설지를 둘러보는 정도로 하였다. 의암 유인석 선생이 경술국치 이후 연해주에서 통합된 항일 무장세력 창설을 주도하여 설립된 이 독립군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이어져온 항일투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인석 선생을 비롯하여 이상설, 이범윤 등이 참여한 이 13도의군은 국권피탈 이후 유인석 선생이 병사하면서 구심점을 잃고 해체되고 말았다.

13도의군 창설지로 추정되는 곳은 유인석 선생의 기록에는 ‘재구(粹溝)’ 즉, 재피거우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곳이 정확하게 창설된 지역이라고 확인한 학술적 내용이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정만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를 밝히기 위해 현지답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항일무장투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은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 진실만큼은 꼭 기억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수리스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조별 발표가 이뤄졌다. 내가 속한 1조의 주제는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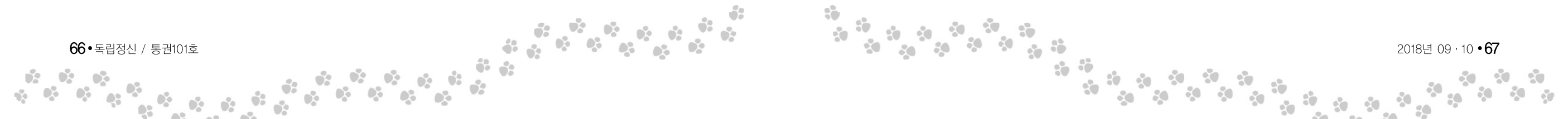
수는 없었고 밖에서 건물 주변을 둘러보았다. 건물 외형은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선생님이 살았던 모습을 잠시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던 최재형 선생의 흔적 속에 이제야 기념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념관도 이제 한국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자주 찾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기억의 한 구석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에 안내판 하나조차 붙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러시아 한 소도시의 오래된 건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전로한족중앙총회 결성 장소

이른 아침부터 찾아간 곳은 최재형 선생님 마지막 주거지였다. 1860년대 말 러시아 연해주로 이민을 간 그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속에서 군수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된다. 그의 막대한 부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등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최재형 선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연해주

전로한족중앙총회 이전에도 연해주 지역에는 한인 자치단체들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권업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강제 해산 당한다. 그 이유는 러시아 제국이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조직들은 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이후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발발하면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다시 새로운 한인 자치조직 설립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지지할 것인가를 불세비키를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당시 케렌스키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고려족중앙총회를 창설하고, 불세비키를 지지한 사람들은 아령한인회(한족중앙총회)를 별도로 창설한다. 이후 두 개로 나뉜 한인 자치조직은 1918년 전로한족중앙총회로 통합하는데 합의하였고, 이 조직은 이후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로 발전·계승된다.

66 • 독립정신 / 통권101호



이후 방송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나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연해주 지역은 항상 누구보다도 앞서서 활동했던 지역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대한국민의회 이전에는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가 먼저 설립되어 이 지역에서 활동했었다. 그만큼 연해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지나치면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선진적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다시 한 번 이 지역의 발 빠른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이동한 곳은 고려인문화센터였다. 답사단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오전에 계획된 교수님들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 왔다. 특강에 앞서 고려인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한인 연해주 이주사와 항일운동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동영상 시청 후에는 역사관 내부를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강우규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속했던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이 바로 연해주 신한촌에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이다. 서울역 앞에서



고려인 역사관에서의 동영상 시청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보았던 그의 동상을 보면서 그가 어디에 속한 단체가 어디인지만 확인하였지 그의 근거지가 여기였다는 것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암기에 급급한 나머지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식의 기억만 나에게 존재할 뿐 독립열사들이 살아온 과정은 크게 기억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한 번 더 되돌아보았다.

역사관을 둘러본 뒤 기념관 2층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의 특강이 시작되었다. 먼저 이만열 교수님의 특강이 시작되었다. 이만열 교수님은 이동휘 선생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다. 이동휘 선생에 대해서는 발표 준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았었다. 그러나 정리가 필요했는데 마침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셔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수님께서도 임시정부 합류 전후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버스 안 발표 자료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애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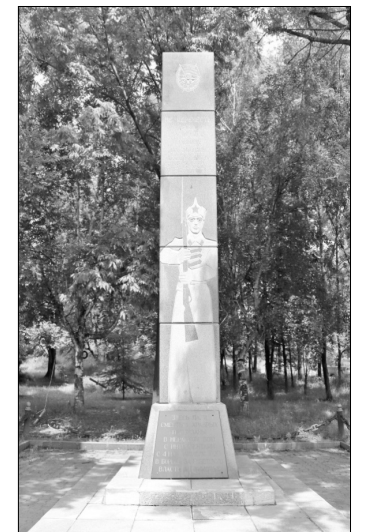
몽운동과 항일투쟁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이만열 교수님 다음에는 조재곤 교수님의 특강이 이어졌다. ‘122년 전 한국인의 세계일주와 시베리아 횡단’이라는 주제였는데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된 민영환과 그 일행에 대한 이야기였다. 역사적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러시아로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생기면서 민영환을 비롯한 특사 일행들은 미주지역과 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들어가서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조선으로 귀국하는 과정이 주된 이야기였다. 여기서 당시 구한말 조선의 어두웠던 외교적 안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당시 특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재밌는 이야기는 특강의 재미를 한껏 더 부여해주었다.

특강 후 점심식사를 하고 답사단은 4월 참변 추모비로 이동하였다. 사실 개인적으로 4월 참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은 머릿속에 잊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었고 나 자신도 찾아보지 않았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4월 참변에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20년 4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제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해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다. 적군과 일본군의 대립 속에서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하여 학살을 자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한인 교민들이 살해되었다. 그 중에는 최재형 선생을 비롯해 많은 한인 지도자들도 있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러시아인과 한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4월 참변 추모비이다. 특히 이 참변은 이후 간도지방에서 일어난 일제의 또 다른 학살인 간도 참변의 전조적인 사건의 성격도 갖고 있다. 4월 참변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간도 참변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란 것은 여전히 나는 역사를 반만 알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뿌질로프카(육성촌)에 있는 한인 학교였다. 이 건물은 대한국민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을 역임한 문창범 선생이 세운 학교이



4월 참변 추모비

다. 이 학교에서는 카프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조명희 선생이 한때 교편을 잡기도 하였다. 러시아에서 군납업자로서 재력을 쌓은 문창범 선생은 연해주 지역에서 교육 및 민족 언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지역에서 발행된 ‘해조신문’과 ‘대동공보’ 등은 문창범 선생의 아낌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간행될 수 있었다.

문창범 선생이 세웠던 육성촌의 한인학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일부가 훼손되었고 내부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외벽에는 건물을 팔기 위해 전화번호가 써진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 건물도 팔리지 않는다면 철거될 예정이라 우리 항일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하나하나 유적지들을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역사는 정작 기억되는 사람들에게만 기억될 것이고 후대에 남겨지지 못하고 언젠가는 잊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된 우리의 유적에 대한 보호나 보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삿질로프카(육성촌) 학교



학교 내부의 방치된 모습

이곳을 뒤로하고 답사단은 이상설 선생 유허비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이상설 선생의 이름을 헤이그 특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상설과 이준, 이위중 이 세 명의 특사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하였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회의장에 왔지만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헤이그 특사들의 임무는 실패한다. 이 사건으로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다.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상설 선생이다.

이후 우리가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상설 선생에 대한 활동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된 성명회와 권업회에서 이름을 잠깐 찾아볼 수 있는 것 말고 없다. 그러나 이상설 선생은 1910년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상설 선생은 연해주에서는 성명회 활동과 항일무력투쟁을 위한 13도의군 창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는 등 항일투쟁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권업회가 발전된 한인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 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취임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생의 활약은 일제의 요구에 의해 러시아 정부가 탄압을 가하면서 좌절된다. 뒤이어 이상설 선생은 상해로 이동하여 신한혁명당을 창당하여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지만 일제의 발각에 의해서 실패하게 된다. 이후 이상설 선생은 다시 연해주로 돌아오지만 병석에 눕게 되고 1917년에 순국하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지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게 된다.



이상설 선생 유허비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고국에 갈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 원고는 모두 불태우고 그 재마저 바다에 날린 후에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의 유언에 따라서 육신과 유품들은 수이푼 강 옆에서 화장되어 강으로 뿌려졌다. 본래 이 지역에서 이상설 선생과 관련된 기념물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 지역의 고려인협회장이 개인재산을 들여 주변 경관을 정비하면서 오늘날의 유허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상설 선생의 유해가 뿌려진 수이푼 강

이곳 유허비에서 참배를 한 뒤 수이푼 강을 둘러보았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타국에서 숨을 거둔 선생의 뜻이 이 강을 따라서 먼 대양으로 나아가 돌고 돌아서 해방된 조국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현실이 과연 이상설 선생께서 바라던 그 해방된 조국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혼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오늘날의 현실이 과연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인지는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이다.

이상설 선생 유허비를 둘러보고 인근의 발해성터로 이동하였다. 우수리스크를 비롯하여 이곳 연해주는 고대에는 한국사의 무대였다. 고구려와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만주지역은 한반도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였다. 이곳 우수리스크는 발해의 15부 중 하나인 솔빈부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이곳 발해성터는 언뜻 보면 넓은 벌판 속에서 언덕진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언덕진 곳이 옛 발해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현재는 토성부분만 남아있으며 지금은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성벽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다. 여기서는 답사단원들 간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곧바로 우수리스크 시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우수리스크 발해성터 가는 길

생각을 달리해보면 이 두 운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고 여기서 인재들이 양성되어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우수리스크 고려사범전문학교는 연해주 지역의 실력양성 독립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 학교는 설립 이후 주로 한인 교원 양성에 매진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폐교된다. 현재 이 건물은 우수리스크 문화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훼손된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과

셋째 날 마지막 답사지는 전로한족중앙총회가 건립한 고려사범전문학교였다. 흔히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배우면서 실력양성운동과 무장투쟁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너무나 편협한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중·고등학교에서는 신민회의 활동에 대해서 실력양성과 무장투쟁을 같이 병행한 단체로서 그 의미를 부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고려사범전문학교 건물

과거 이곳이 고려사범전문학교라는 표시조차 하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어떻게 보면 이곳도 삿갓로프카 한인학교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는데 힘써야 할 유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과거 우리가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했던 그 학교가 목적은 다르지만 여전히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기했다.

4.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중심지, 블라디보스토크(7월 22일 : 넷째 날)

넷째 날 답사지로 출발한 곳은 라즈돌노예였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중간에 위치한 이곳에는 라즈돌노예역이 위치해 있다. 라즈돌노예역은 러시아 한인들의 강제 이주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1937년 스탈린은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 속에서 한인들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킨다.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고려인들은 어렵게 개척한 연해주를 떠나 불모지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농장을 일구어냈다.

연해주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인 라즈돌노예역은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진 채 현대식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본래 이 역에는 기차가 잘 다니지 않는데 이날은 유독 교수님이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은 열차들이 지나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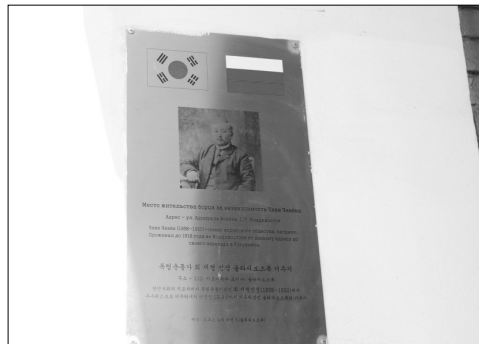
기차역에서 열차가 오가는 것은 일상일 것이다. 1937년의 라즈돌노예역 열차는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중앙아시아로 향했다. 2018년의 라즈돌노예역을 지나는 열차도 시베리아를 횡단해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서 1937년 라즈돌노예역에서 출발한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한인들의 비극을 싣고 역을 떠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열차는 지금도 이 자리를 달리고 있다. 선로 위에서 펼쳐진 역사는 누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 당시 한인에게는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역사의 선로 위에서 답사단



라즈돌노예역 앞에서 단체사진

은 그날 강제 이주한 한인들과 대면하였다.

선로 위의 역사를 살펴보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간에 3조의 발표를 들으며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개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이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한 것은 부동항(不凍港)을 얻기 위해서였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획득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펼친다. 러일전쟁의 패배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잠시 주춤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의 발전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한인들에게도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에서 중심지 역할을 해냈다.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최재형 선생의 블라디보스토크 거주지 안내판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행선지는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였다. 그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변화가인 아르바트 거리 한쪽에는 최재형 선생의 거주지가 있어서 잠시 이곳을 들른 뒤 기념비 쪽으로 이동하였다.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는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집단 거주지인 개척리 부근에 세워져있다. 개척(開拓)의 말 그대로 한인들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1911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행한 콜레라를 근절시킨다는 이유로 개척리를 강제로 철거한다. 이와 함께 이곳에 살던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서북쪽에 새로운 이주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개척리는 ‘구(舊)개척리’가 되었고, 새로운 이주지는 ‘신(新)개척리’로 명명되었다. 이후 신개척리는 ‘신한촌(新韓村)’으로 불리면서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로 자리 잡는다.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보게 되는 신한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개척리에 세워진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는 2015년 연해주고려인연합회에서 세운 것이다. 이 비석 옆에 있는 공원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매결연 한 세계 각국의 도시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일본의 돗토리 현과 러시아 연해주 간의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비석도 같이 세워져 있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기념비는 미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한편에서는 과거를 간직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미래의 우호를 다지기 위한 모습이 대비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기념비 모두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

를 뜻하고 있었다. 이 기념조형물들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구역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역사가 한·러·일 세 국가를 한 공간에 마주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개척리에 세워진 한인 이주 기념비를 뒤로하고 그 다음으로 신개척리 즉, 신한촌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러 이동하였다. 이 기념비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1999년 해외민족연구소가 8월 15일 건립하였다. 사실 원래 이 기념비는 일반인에게 잘 공개가 되지 않아서 평소에는 철창문을 잠가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번 답사를 위해서 가이드 선생이 문을 열어 직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신한촌 기념비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의 큰 돌기둥과 8개의 작은 돌 조형물로 이뤄진 세 개의 돌기둥은 남한, 북한, 재외동포를 상징하며, 8개의 작은 돌은 우리나라의 8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 기념비 방문은 이번 답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 답사에 같이 오신 이만열 교수님께서 기념비 건립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다. 내 앞에 세워진 역사적 기념물을 세운 주역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기념비 옆에는 기념탑문과 함께 건립기, 건립자들이 새겨진 검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비석의 하얀 글자들이 많아져서 육안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20년의 세월이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의 유적지를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은 너무나 불편하였다. 현재 이곳 개척리와 신한촌은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 기념조형물들만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백날 교과서에서만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가 또 언젠가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



신한촌 기념비 앞 단체사진

잊혀버릴 수도 있다. 그 자리를 기억해내고 꾸준한 관심을 보내고 확인하는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신한춘 기념비에서 걸어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 이동휘 선생의 집터가 나온다. 이곳은 이동



이동휘 선생 거주지

휘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현재 이곳은 상점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있다. 건물 주변에는 이곳이 이동휘 선생의 주거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동휘 선생이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동휘 선생 집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서울스카야 2A 번지가 적힌 집이 나온다.

이 주소는 이곳이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임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이 주소가 언제 부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원래 러시아에서는 건물이 비게 되면 철거 대상이 되어서 그 주소마저도 말소가 되는데 이 집은 한인이 떠난 후 러시아인이 거주하게 되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주소도 예전에 사용했던 서울스카야 2A 번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서울스카야 2A 번지 집을 방문했을 때는 답사 자료집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집의 주인이 바뀐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 집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 건축된 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책자 속에는 담장과 문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새롭게 단장한 곳은 높은 담장이 세워졌다. 또한 이곳을 알려주는 서울스카야 2A 번지 주소판도 새롭게 부착되었다. 아



서울스카야 2A 번지 (1992년)
(출처 : 독립기념관)



서울스카야 2A 번지 (리모델링 전 모습)
(출처 : 서울신문)

래의 사진들과 같이 원래 주소안내판은 파란색 바탕에 건물 외벽에 러시아어로 붙여 있었다가 노란색 주소안내판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답사를 왔을 때에는 새롭게 단장한 건물주소판에 러시아어와 함께 한글로 '서울거리'가 적혀 있었다.



서울스카야 2A 번지 (2018년)



서울스카야 2A 번지 새로운 주소안내판

점심식사를 한 뒤에는 이 지역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인 윌 브리너 생가를 잠시 들렀다. 뜬금없이 일정에 계획되지 않은 윌 브리너를 보러간다는 것에 의아했다. 윌 브리너는 너무나 생소한 옛날 배우였다. 영화 '왕과 나'에서 태국 왕 역을 맡았던 그가 왜 이 답사와 연관이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윌 브리너 석상 앞에서 조재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윌 브리너의 조부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의 조부는 구한말 울릉도와 압록강, 두만강의 산림 채벌권을 획득한 러시아의 사업가였다. 구한말 서구 열강이 앞 다투어 조선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겨갔는데 그 중 한 집안이 바로 윌 브리너의 집안인 것이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의 뒤에 우리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윌 브리너 생가를 들린 후 곧바로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특별전으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박물관에 비치된 발해의 지도

로 발해 유물 전시가 이뤄지고 있었다. 1층과 2층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교과서에서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등장했던 발해의 기와와 치미를 비롯하여 석상, 토기 등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금나라와 대진국의 유물과 다양한 미술품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다양한 무기류를 비롯하여 연해주 개척과 관련된 유물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다.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을 관람하고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카프 작가인 조명희 선생의 문학비가 설치된 곳이었다. 조명희 선생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곳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교편을 잡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연해주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교육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도 스탈린 강제 이주 직전에 소련 정부에 의해서 제거된다. 아직도 선생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조명희 선생 문학비만이 이곳이 조명희 선생이 활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곳 문학비에 도착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학비가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연해주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다녔지만 제일 불편했던 점이 바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유적지와 기념물들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활동내역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의 역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위기에 처해지고 있었다. 아무리 글로 읽어도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누구나



조명희 문학비

다 공감하는 사실이다. 우리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러시아 독립운동 유적지는 관심이 너무나도 필요해 보였다.

조명희 문학비 건너편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독수리 전망대가 있다. 독수리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독수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각만 대교

같았다. 도시 한 가운데를 지나는 거대한 금각만 대교가 도시의 웅장함을 더해주었다. 이곳에서 답사단은 조별 그리고 각자 사진을 찍으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추억을 한껏 남겼다. 이 도시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답사단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의 마지막 답사지인 고려사범대학으로 이동하였다.

고려사범대학은 1931년 한인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였다. 앞에서 우수리스크에서는 1927년 고려사범전문학교가 세워졌으며 이후 한인 집단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한인 학교들이 건립되었다. 이 학교는 1935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폐교를 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학교의 자산과 조직은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타로 이동하여 카자흐스탄 국립사범대학으로 이어진다. 현재 이 건물은 은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 이곳이 고려사범대학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

고려사범대학을 본 뒤 다시 아르바트 거리에서는 저녁 하바롭스크로 향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기 전까지 잠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자유시간을 보낸 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단원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곧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역으로 이동하였다. 답사단은 이날 저녁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음날 아침에 하바롭스크에 도착하는 일정이 예정되었다. 기차역에 들어가기 전 다들 기차 안에서 먹을 간식을 챙기고 배부된 기차 탑승권을 들고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실었다.



고려사범대학 건물



블라디보스토크역의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날 열차 안에서의 숙박은 재밌는 경험이었다. 기차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비좁은 공간을 뚫어서 타고 간다는 것에 큰 걱정을 했다. 공간이 너무 좁고 씻기도 불편해서 여정 중에서 제일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걱정은 사그라지고 다들 다음날 예정된 답사단의 밤 행사 준비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서 공연 준비 연습을 했다. 조별 모

임이 끝난 뒤에는 4인실에 그 이상의 숫자가 모여 수다를 떨면서 기차 안에서의 하룻밤을 보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면서 기차는 점점 하바롭스크를 향해 달렸다.

5. 우리가 알지 못한 독립운동, 하바롭스크(7월 23일 : 다섯째 날)

오전 8시 30분, 열차는 정확하게 하바롭스크역에 도착하였다. 단원들은 곧바로 버스에 몸을 실고 호텔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조식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5일차 답사를 시작하였다. 조식 식사 후 이동한 답사지는 빨치산희생자 추모 기념탑이었다. 이곳은 러시아 한인 사회주의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 알렉산드라가 처형당한 곳이기도 하다. 김 알렉산드라는 2조의 발표 주제여서 버스 안에서 그녀와 한인사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었다.



빨치산 추모기념탑 단체사진

그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소련공산당의 전신인 러시아사회민주당에 가입하여 활발한 공산주의 운동을 펼친다. 김 알렉산드라는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 창당에도 힘을 보태어 이동휘와 함께 활약하였다. 그러나 1918년 적백내전으로 인하여 김 알렉산드라는 백군에 의해 체포되고 곧바로 처형당한다. 그녀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녀의 공로가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은 것이다. 김 알렉산드라는 이곳 추모탑에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추모기념탑에는 김 알렉산드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알렉산드라의 업적을 생각해보면 관련된 표식 정도 남기는 것이 이곳을 다녀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뜻깊은 유적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하바롭스크 시립공동묘지이다. 이곳은 스탈린에 의해서 하바롭스크에서 처형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묘지로 2003년에 세워진 추도비석에는 조명희 선생을 비롯하여 한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조명희 선생을 비롯한 한인 지도자들이 묻힌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 채 그들의 이름만이 이곳 시립공동묘지의 비

석에 이름만 남겨져 있다. 공동묘지에 마련된 자그마한 사원인 '기억 사원'을 들어가 보고 교수님과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추도비석에 새겨진 고려인들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시립공동묘지의 기억사원



위에서 세 번째에 새겨진 조명희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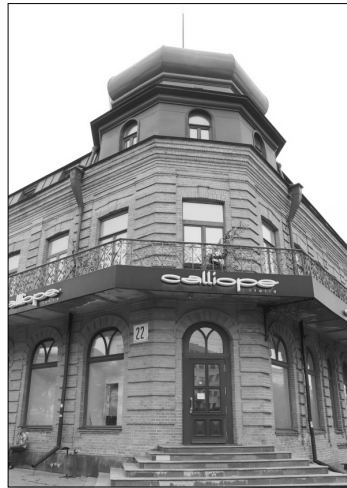
다음으로 간 곳은 볼로차예프카전투 희생자 추모 기념물이었다. 볼로차예프카 전투는 적백내전 중 하바롭스크를 해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전투이다. 1922년 2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일어난 전투에서 고려혁명용군대 6연대 부대와 5연대 소속 김치준 소대가 참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하바롭스크로 입성하게 된다. 그 공로로 고려인 6연대가 적기훈장을 받고, 한인부대는 '볼로차예프카 연대'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여기에 세워진 조형물은 이 전투에서 희생된 118명의 빨치산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에 한인들이 참전한 것은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전투에 참여했던 강상진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실제 기념물에는 한인 빨치산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인과 러시아 간의 연합에 의해서 이긴 전투이지만 한인들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었다.



볼로차예프카전투 희생자 추모 기념물

답사단은 다시 버스를 타고 하바롭스크 시내로 이동을 하였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김 알렉산드라 활동 터였다. 이 건물은 김 알렉산드라가 러시아사회민주당의 하바롭스크 인민위원회 외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과거에는 원동중앙은행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최근에는 리모델링되어 백화점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곳



김 알렉산드라 활동지

이 김 알렉산드라의 활동지라는 표식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인사회당 창당지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한인 최초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은 이동휘와 김 알렉산드라, 박애, 이한영, 김립 등에 의해 1918년 창당된다.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 이기에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인사회당 창당지는 제빵공장부지로 변하였고, 현재는 공사로 인해서 내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는 한인사회당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확인할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같은 조의 김은수 단원의 도움으로 목마를 타서 부지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고 무성한 풀과 나무만 있었다.

하바롭스크의 주요한 한인 독립운동 유적지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하였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러시아 사회주의운동 세력과 한인 간의 연대는 기록조차 남겨져 있지 않았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 무대는 점점 도시의 일부로 녹아들어 그 흔적조차 지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러시아 독립운동 유적지를 살펴보면 장소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물이 조성되었지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 독립운동 유적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특히 하바롭스크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반쪽자리 역사를 배워왔다. 체제경쟁과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통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린 것도 최근의 일이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중심지 하바롭스크는 우리에게 반쪽자리 역사로 남아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에서 하바롭스크라는 도시가 언급된다면 그마저도 다행인 것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제대로 서술된 교과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무대인 하바롭스



한인사회당 창당지

크마저 과거의 역사가 점점 지워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앞으로 이곳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바롭스크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유람선을 타고 아무르 강을 관광하는 것이었다. 유람선에서 본 아무르 강의 강줄기는 매우 드넓었다. 서울에 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한강 줄기도 매우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르 강은 그보다도 더 넓었다. 유람선을 타면서 단원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또 어젯밤 타고 온 시베리아 횡단철도 다리 밑을 지나면서 어제 밤의 기억을 상기해 보았다. 또 아무르 강 유람선에서는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같이 탑승해 있었는데 서로 반가웠는지 우리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답사 잘 마무리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특히 이분들은 나에게 더욱 특별했는데 다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에서 오신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더욱 더 나에게 반갑게 대해 주셨다. 인연은 인연인지라 이분들과도 사진 한 장을 남기면서 아무르 강 유람선을 끝으로 하바롭스크의 답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숙소로 이동한 뒤에는 해단식과 답사단의 밤 행사가 시작되었다. 해단식과 수료증 전달식이 이어졌고 골든벨 퀴즈 이벤트와 각 조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각 조별로 펼쳐진 장기자랑은 단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고 박수갈채도 쏟아졌다. 내가 속한 1조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기념비에 힌트를 얻어서 뮤지컬 영웅의 한 대목인 '누가 죄인인가?'를 불렀다. 2조의 자작시 낭송과 3조의 자유시 참변을 재구성한 연극이 이어졌다. 공연이 끝나



아무르 강 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답사 수료 1조 단체사진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해단식

고 이만열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의 결과로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결과는 우리 1조가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1등을 수상하여 답사 마지막 날 밤 조원들과 뜻깊은 추억을 하나 남길 수 있었다.

공식적인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숙소에서는 단원들끼리 답사를 마무리하는 뒤풀이가 시작되었다. 지난 5일 간 서로에 대해서 많이 파악했는지 스스로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내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를 타러 새벽부터 하바롭스크 공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 즐기지 못하고 몇몇은 방으로 돌아가서 내일 일정을 준비하였다. 나 역시도 다음날 일정을 생각하여 먼저 자리에 일어섰다. 답사 마지막 날 밤 단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다음날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6.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며 (7월 24일 : 마지막 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일정은 너무나 힘들었다. 새벽 4시 반으로 맞춘 알람이 울리고 하바롭스크 공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꾸역꾸역 준비를 해서 모이기로 약속한 5시 반까지 호텔 로비로 나가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해서인지 비행기 탑승 후 잠이 들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야 겨우 깼다.



영원의 불꽃과 성 앤드류 예배당

마지막 날 답사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았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의 일정은 영원의 불꽃과 잠수함 박물관, 니콜라이 개선문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먼저, 영원의 불꽃과 잠수함 박물관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는데 영원의 불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하여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이다. 불꽃 양 옆에 있는 '1941'과 '1945'는 소련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연도와 종결된 연도를 뜻하고 있다. 이곳 옆에는 당시 전쟁 때 사용된 구소련의 잠수함 C-56이 있는데 현재는 잠수함 내부를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이 잠수함 안에도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영원의 불꽃 주변에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기념으로 세워진 개선문도 있

다. 보통 개선문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독립문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석조 건축물을 생각하는데 여기의 개선문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대신 화려한 양식이 이 문이 소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 답사 신청 때 내가 제일 먼저 지원서를 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졸업을 앞둔 마당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독립정신 답사단에 합류한 것도 큰 행운이었는데 가장 먼저 지원서를 썼다는 말에 이번 답사를 향했던 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들 버스에 탑승한 뒤 1시간 정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면서 답사단 전체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연을 강조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만난 인연이 꼭 이어나가길 바라는 소감을 남기면서 5박 6일의 독립정신 답사의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기행문의 제목을 나는 '교과서가 가르쳐 주지 않은 독립운동 이야기'라고 정했다. 현재 역사교육을 전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역사 교과서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답사를 가기 전 우리 역사 교과서 속에서 독립운동사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역사 교과서는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반쪽짜리 역사교과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은 매우 부족했다. 이 지역은 간도와 함께 묶여서 설명이 되어 간도의 주변지역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엄연히 이곳도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그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르게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곳이 바로 연해주였다. 또한 사회주의운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러(소) 연대를 펼쳤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그리고 내가 배웠던 교과서에서 이곳의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도 매우 희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교과서인 것이다. 이용했던 방법이 달랐을 뿐 공통된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노력에 대해 우리의 교과서는 조심스러운 접근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를 배운다면 한 면만 아니라 모든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운동에는 경중이 없으며 선악도 없다. 이들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는 결국 서술자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만들어진 구도일 뿐이다. 따라서 더더욱 우리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고 주변화 되어버린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이번 러시아 연해주 지역 답사는 잊고 살았던 반쪽 혹은 일부의 역사를 되찾아가는 여정이

었다. 늘 결과만 외우던 역사 공부라 아니라 과정을 파악하는 역사 공부였다. 그러나 방문하는 독립운동 유적지 중 일부는 훼손이 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유적지는 이곳이 과거 우리의 독립운동 유적지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하나조차도 없었다. 결과만 암기했던 그 역사도 반쪽이었지만, 과정을 파악하는 역사마저도 반쪽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단체 답사를 통해서 이곳이 한인 독립운동 유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개개인이 둘러볼 때는 과연 이곳이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곳인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2018년 8월 16일자 MBC 뉴스



현행 8종의 한국사교과서 (출처 : 중앙일보)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결과로 외우는 역사가 아닌 과정으로 체험하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며, 단면적인 독립운동이 아닌 다방면의 독립운동을 알아야 한다. 구한말 일제 침략 이후 선조들은 독립된 조국을 원했다. 그들이 독립을 위해 사용했던 수단은 매우 다양했다. 거기에는 민족주의도 있었고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등도 있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고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독립운동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야만 이역만리의 우리 민족사가 묻혀 있는 역사의 현장이 살아나는 길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독립정신이 나에게 뿌리 내리기까지

태조앤초애
시드니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어머니의 끊임없는 한국어 교육 덕에 호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건 내게는 어렵지 않았다. 어른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한국에서 오래 살았니?”, “한국에서 어제 도착한 줄 알았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칭찬이 좋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한국어를 잊지 않다니 애국자구나”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어쩌면 인사치레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칭찬들은 정체성에 대한 내 고민의 물꼬를 터주었다. 애국자는 무엇이며 애국정신은 무엇인가? 독립정신은 무엇일까? 사소한 질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어도 토지가 좋지 않으면 그 씨앗 또한 의미가 없지 않은가.

토지를 가꾸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 중 가장 좋았던 선택은 재호광복장학회 장학생을 신청한 것이었다. 토지를 가꾸고 나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던 중, 운 좋게도 광복장학생으로 뽑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제14기 독립정신 답사

단에 합류해 러시아 답사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이미 독립정신이란 나무를 키우신 분들과 동행했다. 올해 제14기는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자루비노, 크라스키노, 우수리스크, 라즈돌노예,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 6개 도시를 답사했다. 일제에 끝까지 저항한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러시아에 도착한 첫째 날, 자루비노로 이동하며 가이드가 간단한 지역 소개와 함께 우리가 꼭 알고 시작해야 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소개해주며 나의 기대감을 키워주었다. 나는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연해주 지역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

둘째 날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가 조국을 위해 힘써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드디어 러시아에서의 나의 첫 토지 가꾸기가 시작된다는 마음에 자루비노에서 크라스키노까지 이동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들떠 있던 나의 마음은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 앞에 도착하자 엄숙하고 경건해졌다. 단지동맹기념비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인의 독립정신을 자랑하듯 위엄 있게 서 있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인이 모두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다지며, 왼손 무명지를 잘라 선혈로 대한독립이라 쓰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했다는 것은 아픈 것은 전혀 못 참는 나에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기념비 옆으로 놓여있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 손도장을 새긴 검은색 기념석물에 손을 마주 대보았다. 그리고 그 옆으로 놓인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밝힌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의 죄목’을 뜻하는 조형석 15기를 바라보며, 당시 안중근 의사의 조국 독립을 위한 간절함과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답함까지 내 마음에 새겼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동하여 도착한 핫산전투기념비(크라스키노 전망대)는 아름다운 정경을 선사해 주었다. 날씨가 좋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삼국이 접경한 지역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조국통일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되찾아낸 조국은 둘로 나뉘어 서로 경계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하나된 조국이기 때문이다.

잊혀진 독립운동가 최재형

이번 답사에서의 엄청난 발견은 최재형 선생을 알게 된 것이었다. 최재형 선생은 한인 마을 중심지인 연추(크리스키노)에 자리를 잡은 후 자수성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이다. 그는 조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며 재산 대부분을 항일투쟁에 사용한 항일운동의 대부

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다. 그분의 러시아 이름은 ‘페치가 최’인데 페치카는 러시아어로 난로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고려인들에게 따뜻한 난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 뒤에서 넘치는 자원으로 도왔고,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사격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 건물을 열어 주기도 했다.

셋째날 그분이 말년을 보낸 곳을 방문했다. 최재형 선생은 자신이 쌓은 부를 항일운동에 다 사용하고 초라한 집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했다. 그는 부가 쌓여 있을 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며 독립운동을 활발히 지원했고, 부가 바닥났을 때도 끝까지 항일운동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위해 살았다. 최재형 선생의 나라사랑, 민족사랑은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과연 나는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며 부끄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선생의 최종 거주지 근처에 있는 ‘4월 참변 추모비’에 들렀을 때는 나름 나 스스로를 애국자로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 1920년 4월 우수리스크 일대에서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러시아인과 한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세운 탑은 무성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4월에서 5월 사이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경섭 선생들이 학살당했고, 시체를 돌려달라는 유족들의 요청마저도 거절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학살되었고, 시신들이 어디에 방기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면서 독립을 당연지사로만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사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다.

이상설선생유허비, 장도빈선생기념비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들를 때마다 우리 조국의 가슴 아픈 역사가 슬프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가슴이 아팠다. 수많은 사적지들이 찾기 어려운 구석에 방치되거나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죄송했다. 최재형 선생께선 “러시아의 추위보다 나라를 잃은 나의 심장이 더 차갑다”라고 했다는데, 나는 오히려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한 최재형 선생의 심장이 더 뜨겁게 느껴졌다. 오히려 이런 역사들을 잊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장이 차가운 것이 아닐까.

발해성터

답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다. 러시아의 기온은 36도 가까이 올라갔으며 나의 체력도 점점 한계를 느꼈다. 러시아 답사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그 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곳도 방문했다. 그중의 하나가 발해성터이다. 발해는 고구려

인 대조영이 세운 국가이다. 나는 대조영의 19대손으로 아버지께 발해가 나의 조상님이 활동했던 지역임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조영은 내게 있어 너무 오래전 역사 속 인물이었고, 활동지역도 러시아여서인지 그의 존재가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다.

극동 러시아 지역 우스리스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발해의 옛 토성은 풀섶으로 뒤덮힌 광활한 대지로 역사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의 조상의 활동지역에 서 있다는 것 만으로도 멀게만 느껴졌던 존재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지금은 러시아에 위치해 있지만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아직도 중국은 발해가 그들의 역사라고 우기는 사실과 발해성터를 찾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에서 발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역사지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발해를 건국한 나의 조상 대조영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덜컥거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나는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다. 그저 앉아서 선생님을 통해 배우는 역사는 당연히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민 3세들은 그마저도 배울 기회가 적으니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직접 역사 유적지를 찾아가 보고 경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가 그랬듯 많은 학생들이 역사의 발자취를 밟으며 공감하면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다음 세대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을 하며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김 알렉산드라와 아무르강

답사가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몸은 피곤했으나, 역사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커져만 갔다. 고등학교 때 광복회 호주지회에서 주최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시를 영역하는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흔히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궁금함이 더 생겼다. 그래서였는지 답사에서 가장 기대하던 김 알렉산드라 관련 사적지를 방문했을 때는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김 알렉산드라는 제정러시아 출신의 공산주의 혁명가이며 한국 독립운동가이다. 그녀는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이며 러시아 하바롭스크 볼셰비키당 위원회 사무국원이었다. 그녀는 시베리아 내전 당시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라 백위파에게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에서 처형당했다. 그곳에는 빨치산희생자 추모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이 기념탑은 매우 아름답고 깨끗이 정리된 곳에 세워

져 있다. 그 아름다움이 잔인한 역사와 대비되어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

아무르강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강이다. 탁 트이는 기분과 해방감이 들었지만, 그곳 또한 김 알렉산드라를 포함한 수많은 시체가 던져진 곳이다. 시체가 던져진 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이 자유로운 평화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하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호주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공부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건 모두 나라를 지켜준 독립선열들의 노력과, 일제에 굴복하지 않은 굳건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는 나에게 좋은 토지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는 이 답사를 통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을 배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교훈을 터득했다. 앞으로 그들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나갈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 씨앗이 탄탄한 토지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한번 뿌리를 내린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는다. 나는 이 나무를 잘 성장시켜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씨앗들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의 문화와 언어만 사랑하는 내가 아닌 한국의 역사를 알고 애국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답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황명하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재호광복장학회에 계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답사에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원들 특히 1조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경남 서부와 임시정부



추 경 화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

경남 서부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김근수, 김홍권, 박덕실, 박내홍, 김한경, 조기홍, 최원형, 하동노, 홍수원, 화진선 등이다.

김근수(金根守) 선생은 원적지 경남 진주시 평안동이며 서울 마포구 이현동으로 옮겼다가 만주로 건너가 심양에서 조선의용대에 편입해 활동했고, 상해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 광복군에 입대하게 된다. 김구 선생의 중계로 광복군 전월선 여사를 만났고 결혼하게 된다. 부부 광복군. 부부 항일투사로 기록된다. 슬하에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대전 대덕구에서 당선된 외교위원장이었던 김원웅(金元雄)이 있다. 김근수 선생은 중국 하남성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광복군 제1지대 제3대 소속으로 특파공작원으로 비밀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김근수 선생은 제1지대 이준식 지대장 소속으로 구대장이 되었다. 1977년 건국포장을 수상하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김홍권(金弘權) 선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 유경환 선생을 만나 의기투합하고 상해로 건너가게 되었다. 김홍권, 유경환 선생은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원에 선정되어 활동하다 국내로 진입하게 되는데, 군자금 모집을 전개하게 되었고, 사천 다술사에서 애국 동지들을 만

났고 부산으로 옮겨 동래에서 산해관을 개업해 길으로는 여관이지만 임정을 위한 군자금을 모아 보내는 루트 역할을 했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박덕실(朴德實) 여사는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택에서 혈성단을 조직해 김두현, 이근이 등에게 군자금을 제공하고 대한애국부인회 진주지회장으로 활동하다 일경에 피체되었으며, 임신 중이지만 일제는 석방하지 않아 8개월간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남편 한규상 선생도 진주 3·1운동을 주도하고 일경에 피체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198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분이다. 한규상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진주YMCA를 창립하였고 진주청년회와 신간회(新幹會) 활동을 전개하였고 만주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의사(醫師)로서 1970년까지 진주와 마산 일원에서 원장과 한일의원 원장이었다.

박내홍(朴來洪) 선생은 한의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형과 신상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3·1운동을 목격하고 감동을 받아 일생 동안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3·1운동과 더불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자 기원필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기로 하고 기원필의 고향인 전북 남원의 부호들을 찾아다니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공채증권을 발부하는 등 서울로 왕래하며 활약하였다.

1920년 11월 기원필을 통해 임정에서 발행한 1천원권 공채증권 1장, 1백원권 공채증권 2장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려다가 우편 검열과정에서 바로 일경에 잡혀 1921년 6월 10일 경성지법에서 소위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언도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동아일보 1921년 6월 22일자).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항주로 임정을 옮긴 이후에도 공채를 모집했고 1935년 11월부터 1937년 11월까지 진강으로 피난하면서도 임정 공보를 발행하고 조선민주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박내홍 선생은 일명 박중래라고 했는데 이는 일제를 유도하고 항일투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정을 위해 국내에서 계속 활동 중 고등계 형사에게 발각 체포되어 1935년 7월 11일 경성지법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부인 영산 신씨 신상남과 슬하에 장남 박병규를 낳았으나 일찍 죽고 장녀 박기남은 무안군 출신 김금용과 혼인했다. 김금용의 아들 이름이 김성옥(고려대 사학과 졸업, 사라문화대표)인데 천안시 독립기념관의 임정요인 42인을 실제와 똑같이 만든 밀랍상을 재현시킨 분이다. 김성옥은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손숙 연극배우와 부부간이다.

최원형(崔垣亨) 선생은 경주 최씨로 사천지역에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된 최범술의 숙부

이며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사천지역 핵심 지도자였던 최채술의 아들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에 진 빚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남녀노소, 신분고하, 종교 불문하고 27만여명이 십시일반으로 연보한 사건으로 동래상인들과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다.

11세에 곤양보통학교에 입학하니 항일투사 조우제 선생이 교사로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보통학교 졸업 후 경기고보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서울 3·1운동에 참가하고 피체되었고 엄중한 조사를 받고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에서 임시정부를 위한 주일외교관계 담당으로 미·영·불의 사절로 활약하다가 요시찰 인물로 일경에 피체됨이 수십 차례였다. 임시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 밀서가 귀향하는 소녀 편에 의탁되었으나 일경의 검문에 발각되어 동경에서 피체되었다. 최원형 선생은 거물 정치인이라 하여 악형을 더하고 조선인이 조선 독립을 위함이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항변했다. 징역 5년형이 언도되었고 대전형무소로 옮겨 복역중 1945년 2월 8일 흑한으로 옥중에서 돌아가시니 순절·순국이다. 1994년 10월 21일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2묘역 2-269에 안장되었다.

하동노(河東老) 선생은 임시정부를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경 황종화, 하남식 등과 함께 경남단이란 항일단체를 만들었다. 임정을 위한 금전 수입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일경에 발각, 피체되었고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사기 미수 및 협박죄로 징역 1년6월형이 언도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노동공제회 진주지회 대곡면 대표가 되어 활동하는 등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경 경남 진주에서 황종화 등 6~7명이 모여 요즘 서울과 전국 각처에서 항일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니 우리 경남에서도 경남을 대표할 만한 단체를 만들자라고 말하여 합의하였다. 조직 이름을 경남단으로 하고 6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하용제 등에게 경남단 가입을 권유하고 출자금을 내줄 것을 희망하였다. 진주부호들을 찾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으고 창원 출신 권태용 외 2명을 상해로 파견하여 경남도 금전 수금원으로 귀국하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진주시 귀곡동 정모 부호로부터 상당액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일경에 잡혀 옥고를 치렀다. 하동노 선생은 1993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홍수원(洪秀璦) 선생은 경남 진주시 평안동 출신으로 임시정부를 도우기 위한 목적으로 혈성단(血誠團)을 조직하여 단장으로서 박덕실 등과 함께 김두현, 이근이 등을 통해 군자금을 제공하였고 이부조 등을 상해 3·1공학으로 보내 교육을 받고 귀국하도록 주선했다. 혈성단 구성원은 강우석, 여병섭, 김창욱, 강상은, 김정도, 강성화 등이다. 강우석, 여병섭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또 평양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는 박인관, 박승명 등이 중심이 되어 길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항일결사였다. 이를 모방한 단체가 경남전도회로서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경남전도회는 1919년 11월 상해에서 발행한 대한민보 1천5백부를 인수하여 각 교회를 통해 배포하였다. 홍수원, 박성애, 김정도, 정성도 등이 모두 검거되었다. 홍수원 선생은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아 혼절하였다.

홍수원 선생에 대한 재판기록은 신분장지문기록에 기재되어 전해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19년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공판이 있었고 1920년 2월 14일 진주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라고 하였다. 경남전도회 사건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1년 4월 22일자에 의하면 고운서에 대하여 징역 1년형이 언도되었고 다른 이들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1932년 4월까지 일제가 홍수원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사건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채 피신하게 되자 일경이 바로 임정 사무실을 급습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이때 혈성단 존재와 홍수원 단장이 노출되고 말았다. 일경이 피체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함안으로 도주했으나 일경에 잡혔다. 혹독한 고문을 받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치장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피체되고 말았다. 10여년간 숨긴 사실과 도주하다 잡힌 것과 더욱더 극심한 고문을 받고 혼절하더니 마침내 1937년 5월 17일 옥중에서 순국·순절하였다. 1968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고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화진선(化進善) 선생은 경남 진주시에서 화재식과 인동 장씨의 장남으로 1889년 3월 15일 태어났다. <진양화씨세보>에 의하면 조선 성종 때 귀화한 정성군 화명신이 원조이며 임진란과 정유재란 때 큰 공을 세운 화섭(化燮)이 중시조로 기록되었다. 영양군 화섭의 후손인 화진선 선생은 3·1운동 때 시위대열에 동참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큰 감동을 받고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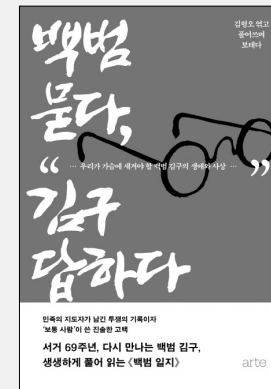
임시정부를 위하여 사천·산청·하동 일원에서 군자금을 모아 송금하는 등 활동하고 보천교가 독립투쟁의 선봉이라는 말을 듣고 가입하고 각 시도별 최고 책임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따라 경남에서 활동하다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형이 언도되어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며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전해 온다. 1942년 9월 23일 옥고와 고문 후유증으로 고행하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만 53세 때 세상을 떠났다. 1921년 대구지법 형사사건부와 집행원부를 필자가 찾아 정부포상을 신청한 결과 대통령 표



창이 추서되었다.

진주 출신 박진수(朴眞守) 선생은 1935년 당시 21세 청년이었다.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상해로 건너가 김구 선생 등의 추천을 받아 남양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워 졸업하고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중국군에 입대하여 장교가 되었다. 진주출신 이달(李達) 선생이 1924년경 중국 상해로 건너갈 때 28세 청년이었다.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 신한농민당에 가입하고 신민부에 들어가 활동했다. 신민부란 1925년 북만주 지역에서 조직된 항일운동 단체이다. 김좌진 장군의 대한독립군단과 김혁 장군의 대한독립군정서가 각 단체 대표들이 영안현에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무장한 5백명의 별동대와 보안대를 편성하여 군사부 위원장 겸 총사령 김좌진의 영솔하에 활동을 개시하였고 치안과 농촌계몽 그리고 상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한다.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 지은이 | 김형오
- 쪽수 | 412쪽
- 출판사 | ar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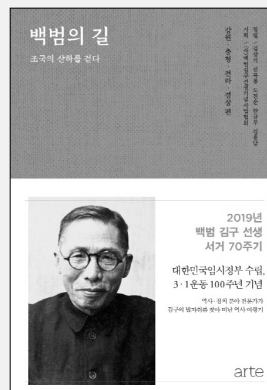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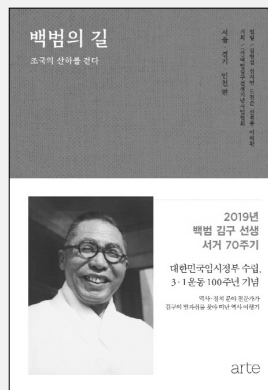
묻고, 답하고 덧붙여 읽는 새로운 김구와 <백범일지>

“이럴 때 김구 선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백범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서를 대신해 남긴 회고록이자 민족을 위해 순국한 동지들을 기리며 피로 쓴 독립운동사, <백범일지>.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묻고 백범이 답하는 형식을 빌려 재구성한 <백범일지>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역임한 김형오 부산대 석좌교수가 2018년 백범 서거 69주년을 맞아 풀어낸 이 책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마다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 백범의 삶과 시대를 재조명하고 있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민족의 영원한 사표로 길이 기억될 백범을 다시 만난다. 80여 장의 도판을 수록해, 독자로 하여금 백범의 올곧은 나라 사랑의 정신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백범의 길 ; 조국의 산하를 걷다 (전 2권)

- 지은이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기획), 김상기, 신복룡, 도진순, 한규무, 김용달
- 쪽수 | 352쪽(1권), 292쪽(2권)
- 출판사 | ar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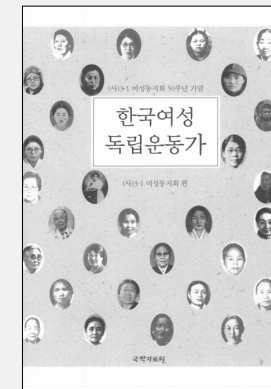


김구의 숨결, 얼과 혼을 찾아가는 먼 길

역사학과와 정치학계의 전문 연구자 여덟 명이 백범의 길을 찾아 나섰다. “길도, 안내인도, 등불도 없었다. 백범은 스스로 길을 내고 등불을 밝히며 고단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국의 산하와 중국대륙 곳곳에 피땀으로 얼룩진 얼과 혼을 새겼다. 우리는 그 길을 되밟기로 했다. 백범이 걸어간 길 위에서 당시의 시대상과 그의 행동, 그리고 사상을 되짚어 보려 했다.”(발간사 중에서)

〈백범의 길〉은 1권(서울·경기·인천편), 2권(강원·충청·전라·경상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중국 학자들과 합작으로 〈중국편〉이 출간되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대로 분단과 전쟁을 온몸으로 막으려 애썼던 백범의 마지막 길을 따라 북녘땅 답사기도 낼 계획이다.

한국여성독립운동가



- 지은이 | 3·1여성동지회
- 쪽수 | 952쪽
- 출판사 | 국학자료원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딸의 독립운동 이야기

세상의 절반은 여성. 이 당연한 이치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산다. 역사가 특히 그러하다. 〈사기열전〉 70권에 등장하는 200명이 넘는 주인공들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마천의 시대였다고 양해가 되는 것일까. 불과 한 세기 전인 독립운동사 또한 그러하다.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아들만의 역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반쪽이며, 인간성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건국의 어머니” 여섯 분을 호명한 것과 때맞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투쟁을 발굴하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3·1여성동지회가 펴낸 〈한국여성독립운동가〉는 그 성과의 중간결산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의 무대는 국내외를 망라할 뿐 아니라, 임시정부와 광복군부터 의열단과 노령(蘆嶺)의 좌익 독립운동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두루 찾아간다. 책 두께가 다소 부담스러우나, 세상의 절반을 되찾았다면 온 가족이 두고두고 돌려보아야 할 필독서다.



잊혀진 전설 ; 항일무장투쟁의 불꽃, 의열단과 김원봉



- 지은이 | 무일근대기록물연구소 송종훈
- 쪽수 | 500쪽
- 출판사 | 무일np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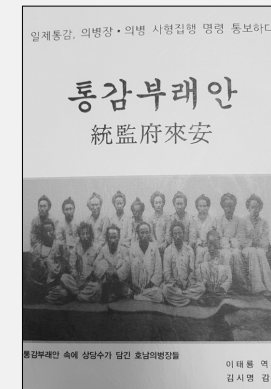
약산 김원봉이 오랜 망명을 끝내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 밀양사람들은 밀양역에서 환영식이 열린 밀양초등학교 운동장까지 가마니를 깔았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영웅을 맞이하는 인민의 ‘레드 카펫’. 그러나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산도 인민도 해방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

〈잊혀진 전설〉은 의열단 의백(義伯) 약산과 의열단의 항일무장투쟁을 기록한 옛 신문철을 하나하나 뒤져 관련 기사를 빠짐없이 번역한 책이다. 엮은이는 “항일투쟁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의열단과 김원봉 선생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과 편견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경이로운 조국 사랑과 항일투쟁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펴냈다고 썼다.

이 책은 약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당시 주요 항쟁 주역들의 피체 및 형 집행 이후 남은 가족들이 살아간 이야기까지 싣고 있어, 독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통감부래안



- 지은이 | 이태룡
- 쪽수 | 206쪽
- 출판사 |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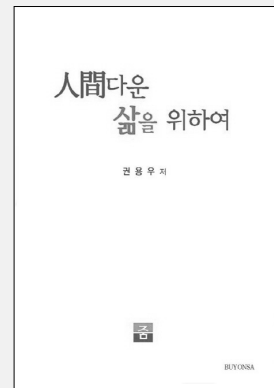
일제 기록에서 찾아낸 의병의 진면목

의병 연구를 필생의 사업으로 정진하고 있는 이태룡 박사가 규장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통감부래안(統監府來案)〉을 발굴, 번역해 출간했다. 통감부래안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통감부(조선총독부) 통감이 대한제국 의정부 총리대신에게 보낸 문서를 말한다. 〈통감부래안〉에는 의병 활동이 낱알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박사는 그 자료에 근거해, 서훈을 받지 못했던 의병장과 의병장급 의병 29명, 의병 활동으로 전사와 교수형으로 순국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유배형을 받은 180여 명 등 210명을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다. 10년 전에는 의병(장) 828명을 포상 신청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약 400명이 현재 포상을 받았다. “일제 기록을 보면, 190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일본 경찰이 간여한 의병 학살을 위한 전투횟수가 1,976회, 의병수가 8만2,767명, 순국자가 5,721명이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태룡 박사는 을미사변 때부터 항쟁한 의병의 수를 약 30만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분들 가운데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이는 2,636명에 불과하다. 민족의 진정한 영웅들(Unsung Heroes)을 기릴 날은 언젠가 될 것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 지은이 | 권용우 • 쪽수 | 355쪽 • 출판사 |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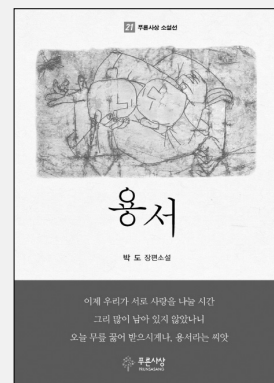


독립정신에서 인간다움을 찾다

“7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명제를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회고하는 저자가, 자신의 평생 화두를 담담한 필치로 갈무리한 자전적 수상록. 저자는 1974년부터 단국대 교수(법학)로 봉직했으며, 민법, 그중에서도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는 각각 인간다운 삶이란? (1편), 애국지사들의 조국사랑(2편), 인간의 삶, 그리고 법(3편)이라는 표제가 붙은 세 편의 글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편에는 만민공동회와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석주 이상룡, 우당 이회영의 치열한 독립운동에서 ‘인간다운 삶’의 정신적 뿌리를 캐내려는 글들이 실려 있다.

용서

• 지은이 | 박도 • 쪽수 | 328쪽 • 출판사 | 푸른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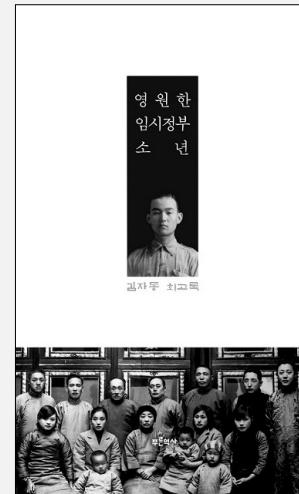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우정

30여 년의 교단생활을 마무리한 저자가 강원도 산골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풀어낸 장편소설.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현. 그를 한없는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친구 장지수. 두 사람의 우정의 궤적에 4·3항쟁, 한국전쟁, 4·19와 5·16으로 굴절을 거듭하는 한국 현대사가 교차된다.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한 이 작품을 통해, 저자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용서의 참된 의미를 일깨운다(출판사 서평). 지은이 박도는 1945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30여 년 교단생활을 마무리한 뒤 강원도 원주에서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김자동 회장, 회고록 출판기념회 열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은 10월 1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회고록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출판기념회를 연다.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은 2014년 출간한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에 이어 출간되는 김자동 회장의 두 번째 회고록이다. 이번 회고록에는 전편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며, 김자동 회장은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불의에 맞섰던 당신과 지인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몽양 여운형선생 서거 71주기 추모식 및 추모 좌담회 개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부영)는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1주기를 맞아 7월 16일에 좌담회, 19일에 추모식을 개최했다.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과 조광국사편찬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한반도 평화의

길, 여운형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사회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삼성 한림대 교수, 조동준 서울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패널로 나섰다.

추모식은 강북구 우이동 묘소에서 각계 인사 추모사에 이어 헌시, 추모 공연, 노래 제창, 유가족 인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거행됐다.



73주년 광복절 · 70주년 정부수립 경축식, '용산'에서 엄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했다. 대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던 경축식이 광화문 광장이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적은 있었으나 용산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

었지만 광복과 함께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 됐다.

이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고(故) 최병국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고 손용우 선생과 고 허은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고 신창희 선생에게 건국포장을, 고 손달익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고, 그 후손들에게 친수했다. 이번 독립유공자 전체 포상은 건국훈장 애국장 31명, 건국훈장 애족장 62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 표창 58명 등 총 177명이다.(포상자 명단 108P)

'아픈 역사 한눈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경술국치일 맞춰 개관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을 열었다. 2011년 2월 건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8년만의 개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기부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된 민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전시와 교육을 통해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

에 걸친 일제 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담았다.

이이화 박물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을 통해 박물관이 개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자료를 활용해 전시는 물론 교육교재도 개발한다. 박물관은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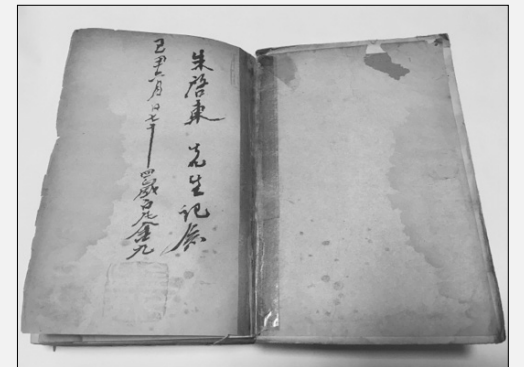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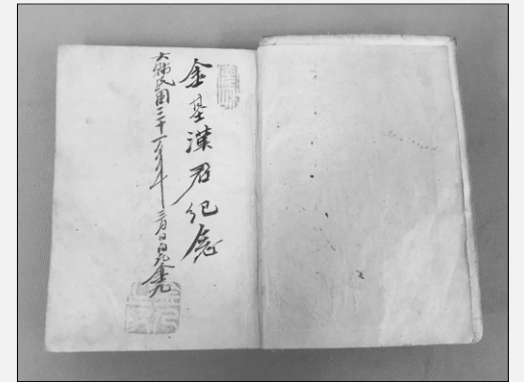
〈백범일지〉 친필 서명본 두 권 찾았다

한국근대문학관이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 친필 서명본 두 권을 입수했다. 기존에 초판만 소장하고 있던 문학관이 재판과 3판까지 소장하게 된 것이다. 8월 28일 한국근대문학관은 “한 권은 개인 소장가가 기탁(寄託)했고, 한 권은 내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올 초부터 찾아다니던 끝에 대구 고서점에서 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필 서명본은 아래 위로 김구의 인장 2개가 찍혀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각각 1949년 김기한과 주계동이란 인물에게 증정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칭과 준 시기, 책을 주는 본인에 대한 표현 등이 서로 다르다.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김기한 군”과 “주계동 선생”으로 돼 있고, 책을 준 시기는 “대한민국 31년 3월”(김기한 증정본)과 “기축 2월”(주계동 증정본)로 쓰여 있다.

김구 본인에 관한 것은 모두 “백범 김구”로 적었지만 주계동 증정본에는 “백범 김구” 앞에 “74”라는 나이를 적어놓았다. 함태영 한국근대문학관 학예연구사는 “백범 선생에게 책을 받은 두 인물 역시 독립운동 관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소장본이 백범의 인간관계는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일지〉는 1929년과 1943년 각각 집필돼 1947년 12월 초판이 발행됐고 1년 만에 3판을 찍었다. 김구가 〈백범일지〉에 쓴 친필서명은 특유의 흔들린 글씨로 유명한데, 이는 그가 독립운동 중 입은 총상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수전증을 앓았기 때문이다.



일제총독에 폭탄 던진 강우규 의사 의거 99주년 기념식 개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던져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만방에 떨친 강우규 의사 의거 99주년 기념식이 9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1855년 평남 덕천에서 태어난 강 의사는 교육 사업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다가 1919년 9월 2일 당시 '남대문정거장'이었던 서울역 광장에서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일행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사이토

총독 폭살에는 실패했으나 그의 의거로 일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강 의사는 1920년 11월 29일 사형집행장에서 ‘감상이 어떠냐’는 일제 검사의 질문에 한시로 “단두대상 유재춘풍 유신무국 기무감상(斷頭臺上 猶在春風 有身無國 豈無感想·단두대에 홀로 서니 봄바람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오)”라고 읊으며 기개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강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청사 조성환 선생 서거 70주기 추모식 열려



청사 조성환 선생 서거 제70주기 추모식이 10월 6일(토) 오전 11시 효창공원 조성환 선생 묘 앞에서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추모식은 제65주기 추모식 이후 5년 만에 거행되는 것으로,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 각계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전 보고, 추모사, 추모가, 헌

화·분향, 손녀 조은옥 씨(미국 거주)의 유족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환 선생은 1907년 안창호·양기탁 등과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에 투신하였으며, 1912년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를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유배형을 받은 뒤,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하다가, 다시 만주로 가서 청산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뒤, 군무부장, 외무부장 등을 역임했고, 광복 후 국내로 돌아와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애쓰다, 1948년 서거하여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제18차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회



본회 제18차 임정 이사회가 10월 12일(금)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일선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20명 이상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14차년(임정기념관 12차년) 사업 및 활동이 보고되었다. 또, 제13차년(임

정기념관 11차년) 결산서 승인의 건, 제15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결안건으로 제출돼 가결되었고, 기타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임정기념관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제14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공모전 시상식

- 1등(상금 30만원) : 김성찬(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 2등(상금 20만원) : 태초애(시드니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3등(상금 10만원) : 나병욱(시드니대학교 고등교육학과)



제73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177명)

◆ 건국훈장 93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58명 ◆

☞ 건국훈장 애국장 (31명)

계석노 桂錫魯 (의 병)	윤병운 尹秉運 (학생운동)	이충재 李忠在 (만주방면)
김덕원 金德元 (의 병)	윤중성 尹仲成 (만주방면)	정종명 鄭鍾鳴 (국내항일)
김복선 金福善 (의 병)	이금옥 李今玉 (의 병)	차연욱 車連旭 (의 병)
김정문 金正文 (의 병)	이대호 李大好 (의 병)	최병국 崔炳國 (국내항일)
김창욱 金昌旭 (의 병)	이덕경 李德慶 (의 병)	최영진 崔英鎭 (만주방면)
박정손 朴正孫 (국내항일)	이봉래 李鳳來 (의 병)	최인선 崔仁先 (만주방면)
봉순택 奉順澤 (의 병)	이어승 李汝崇 (의 병)	최학선 崔學先 (의 병)
신돌석 申堧石 (의 병)	이인섭 李麟燮 (의 병)	편군선 片君善 (의 병)
염봉선 廉奉善 (의 병)	이정식 李定植 (의 병)	한성호 韓成浩 (국내항일)
원일상 元逸常 (의 병)	이종복 李鍾卜 (의 병)	
유갑순 柳甲順 (국내항일)	이창영 李昌英 (의 병)	

☞ 건국훈장 애족장 (62명)

강약수 姜若秀(국내항일)	김두현 金斗鉉(국내항일)	김시범 金時範(3·1운동)
고병간 高秉幹(3·1운동)	김병항 金炳恒(만주방면)	김연건 金然健(3·1운동)
곽선호 郭善浩(국내항일)	김복근 金福根(학생운동)	김영조 金榮洮(3·1운동)
곽영선 郭永善(3·1운동)	김복길 金福吉(의 병)	김창순 金昌淳(의 병)
곽익호 郭益浩(국내항일)	김성구 金聖九(의 병)	김창준 金暢浚(국내항일)
김공찬 金公贊(의 병)	김성권 金成權(의 병)	김창천 金昌天(만주방면)

남정성 南精性(국내항일)	백산봉 白山峰(중국방면)	조병주 曹秉周(의 병)
류연술 柳淵述(국내항일)	변응찬 邊應燦(임시정부)	조인배 趙仁培(3·1운동)
박기원 朴基源(국내항일)	서석근 徐石根(의 병)	최노미 崔老味(의 병)
박대선 朴大先(의 병)	손공린 孫公璘(국내항일)	최명기 崔明起(의 병)
박막동 朴莫同(의 병)	손용우 孫龍祐(학생운동)	최복길 崔福吉(국내항일)
박명줄 朴明茁(국내항일)	송성무 宋聖武(의 병)	최영만 崔永萬(의 병)
박상숙 朴相淑(의 병)	송진근 宋珍根(국내항일)	최의봉 崔義鵬(국내항일)
박세현 朴世賢(3·1운동)	신태경 申泰敬(의 병)	최점손 崔点孫(의 병)
박영달 朴英達(국내항일)	안수갑 安守甲(국내항일)	하수철 河順哲(국내항일)
박영렬 朴永烈(의 병)	오성무 吳成武(국내항일)	한도신 韓道信(중국방면)
박영찬 朴泳燦(만주방면)	이미동 李美東(국내항일)	함순안 咸順安(의 병)
박인석 朴仁錫(3·1운동)	이병선 李炳善(의 병)	허 은 許 銀(만주방면)
박정금 朴正金(미주방면)	이은숙 李恩淑(중국방면)	홍종식 洪鍾寔(국내항일)
방돌이 方疋伊(의 병)	임대수 林大洙(국내항일)	황목룡 黃木龍(의 병)
백남충 白南忠(의 병)	장명진 張明珍(국내항일)	

☞ 건국포장 (26명)

곽재호 郭載鎬(의 병)	성석기 成錫驥(3·1운동)	이동화 李東華(국내항일)
김명려 金明麗(3·1운동)	송병일 宋炳一(국내항일)	이병호 李炳浩(미주방면)
김순종 金順宗(국내항일)	송성겸 宋聖謙(국내항일)	이상래 李祥來(국내항일)
김윤식 金允植(국내항일)	송정욱 宋鼎頊(임시정부)	이재수 李在洙(미주방면)
김한용 金漢龍(국내항일)	신우균 申祐均(국내항일)	제영순 諸英淳(국내항일)
김한필 金漢弼(국내항일)	신창희 申昌喜(중국방면)	조순석 趙順石(국내항일)
명순조 明舜朝(임시정부)	안종달 安鍾達(3·1운동)	최은동 崔殷東(의 병)
방한조 方漢祚(미주방면)	양성호 梁性皓(일본방면)	한익권 韓益權(미주방면)
변기학 卞奇學(국내항일)	이갑문 李甲文(학생운동)	



【정부포상자 명단】

☐ 대통령표창 (58명)

강태하 姜太河(국내항일)	박덕실 朴德實(국내항일)	이범성 李範成(3·1운동)
고인석 高麟錫(학생운동)	박동준 朴東俊(국내항일)	이호상 李浩相(3·1운동)
권준희 權準羲(국내항일)	박동희 朴東羲(3·1운동)	임용한 林容漢(3·1운동)
김경신 金敬信(국내항일)	박승정 朴承鼎(3·1운동)	임창현 林昌鉉(3·1운동)
김경화 金敬和(학생운동)	박양순 朴良順(학생운동)	장재관 張在瓘(3·1운동)
김광순 金光珣(3·1운동)	변명경 邊明慶(국내항일)	전천년 田千年(3·1운동)
김금석 金今石(3·1운동)	성혜자 成惠子(학생운동)	정금자 鄭錦子(학생운동)
김성덕 金盛德(3·1운동)	소은명 邵恩明(학생운동)	정의용 鄭宜鎔(3·1운동)
김용덕 金龍德(국내항일)	손달익 孫達翼(3·1운동)	정인근 鄭仁根(학생운동)
김종언 金宗彦(국내항일)	송영록 宋永錄(3·1운동)	정지영 鄭智永(미주방면)
김주석 金周錫(국내항일)	송인수 宋仁洙(3·1운동)	조공찬 曹公贊(3·1운동)
김진림 金震林(의 병)	신계선 愼啓善(3·1운동)	조만인 趙晩仁(3·1운동)
김 호 金 護(3·1운동)	안옥자 安玉子(학생운동)	조무빈 趙武彬(3·1운동)
김화자 金花子(국내항일)	안희경 安喜敬(학생운동)	조진규 趙珍奎(국내항일)
나정윤 羅正綸(국내항일)	옥순영 玉淳永(국내항일)	최은전 崔殷田(학생운동)
노보배 盧寶培(학생운동)	윤동휘 尹東彙(3·1운동)	한백흥 韓伯興(3·1운동)
노수천 盧守千(3·1운동)	윤병의 尹秉義(의 병)	허 경 許 璟(국내항일)
민영진 閔泳軫(3·1운동)	이강하 李康夏(의 병)	홍승애 洪承愛(3·1운동)
박갑만 朴甲萬(국내항일)	이공우 李公雨(3·1운동)	
박경선 朴敬善(미주방면)	이관옥 李觀沃(국내항일)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8년 7월, 8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회원명	7월	8월
김필성	30,000		김광재	5,000	5,000	이상준	100,000	100,000
김승준		10,000	김동수	30,000	30,000	이석문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률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김상웅	20,000	20,000	이윤옥	20,000	20,000
윤석용	100,000		김성곤	10,000		이응국	5,000	5,000
강찬모	20,000	20,000	김영방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영일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김빛나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이창윤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김은수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이학노	20,000	20,000
김 위	20,000	20,000	김재홍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태동	30,000	30,000	김정인	20,000	2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판수	5,000	5,000	김종규	10,000	1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김종숙	10,000	10,000	임재경	10,000	10,000
남만우	100,000	100,000	김진현	50,000	50,000	임홍재	10,000	10,000
노웅래	20,000	20,000	김태원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류동연	20,000		김학근	20,000	20,000	장두원	20,000	20,000
박년희	10,000	10,000	김혜련	20,000	20,000	장채령	10,000	
박녹삼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노수문	20,000	20,000	정관훈	100,000	100,000
박의란	20,000	20,000	노영택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박인석	10,000	10,000	류한수	30,000	30,000	조명숙	10,000	10,000
박재민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조선희	10,000	10,000
배다지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박용규	10,000	10,000	조용옥	10,000	10,000
서봉수	10,000	10,000	박유진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박은봉	30,000	30,000	조정훈	30,000	30,000
신명식	10,000	10,000	박재선	30,000	30,000	조회환	20,000	20,000
오상균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윤용환	10,000	10,000	배상윤	5,000	5,000	천정배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배해원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이양순	20,000	20,000	백부원	10,000	10,000	최희주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한익석	10,000	
이일선	20,000	20,000	서동희	5,000	5,000	한홍구	20,000	20,000
이진규		10,000	석혜진	10,000	10,000	홍범식	20,000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신태영	10,000	10,000	홍석천	5,000	5,000
이항중	30,000	30,000	신희범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임진택	5,000	5,000	심옥주	10,000	10,000	황인자	30,000	30,000
장상록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강만길	20,000	
전우규	30,000	30,000	안재용	10,000	10,000	김대현	20,000	
정만기	30,000	30,000	양인선	10,000	1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정철승	30,000	30,000	엄기남	10,000	10,000	윤종준	10,000	
정현주	50,000	50,000	엄승훈	10,000	10,000	이만열	500,000	
최권행	30,000	30,000	오정섭	20,000	20,000	정지완	5,000	
최수희	30,000	30,000	우상호	10,000	10,000	이상훈		20,000
황명하	10,000	10,000	유덕곤	10,000	10,000	정민규		10,000
차영조	20,000		유영일	30,000	30,000	조영빈	5,000	5,000
원영애	20,000		윤철호	100,000	100,000	홍용희	10,000	10,000
채현국	100,000		윤한옥	10,000	10,000	이병국	300,000	300,000
강재욱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곽태원	50,000		이기자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이범중	100,000	100,000			
김광림	30,000	30,000	이상준	100,000	100,000			

2018년 7월, 8월 특별회비

회원명	7월	8월
(주)오토오티오	18,000,000	18,0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㉓

강석대와 서대문형무소

강석대(姜石大)는 강원도 화천에서 3·1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 서대문감옥 수감 기록인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466년(1857년) 5월 12일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록 밑에 작은 글씨로 안정(安政) 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는 1856년생으로, 판결문에는 63년생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감자 기록카드에는 일반적으로 일본 연호인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를 사용하는데 간혹 강석대처럼 조선의 개국연도를 기준으로 출생년도가 기록된 경우도 있다. 신장은 척·촌·분으로 표시되어 5척 6촌 0분이다. 미터법으로 표시하면 약 168cm가 되는데, 1850년대 태어난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로서는 키가 큰 편에 속한다.

수감자 기록카드 앞면에는 그의 사진은 정면과 오른쪽 측면 두 장이다. 약간 두툼한 겨울철 수인복을 입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서 명치 방향의 사선으로 “姜石大”라고 쓰인 인식표를 붙이고 촬영했다. 수인번호 42번이다. 수감규정에 의해 머리는 삭발에 가까운 수준으로 짧게 자른 상태이며, 차렷 자세로 입을 굳게 다물고 사진기의 오른쪽을 응시하고 있다. 강제병합 후 10년이 안된 시점에 만들어진 수감자 기록카드이기에 촬영 일자리를 적는 곳이 없다. 상단 오른쪽에는 지문번호가 있는데 89877-78788이라고 적혀 있다. 이 지문번호는 재소자 신분장이라는 또 다른 기록물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강석대 재소자 신분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뒷면을 보면 본적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신읍리 231번지이다. 출생지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주소는 본적과 동일하다. 신분은 상민이며 직업은 농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천도교인이라 기록되어 있다. 처벌될 당시 죄명은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 형명형기에 징역 8월이라고 되어 있다. 판결문에서 강석대는 천도교도로서 김희인·김한수 등과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왕성해지는 것에 그 취지를 찬성하고, 3월 23일 화천군 화천면 신읍리(新邑里)에서 수십 인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때 제지하던 헌병에 저항하여 징역을 연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성서북심법원(京城西覆審法院)에서 1919년 9월 20일에 판결을 받았는데 형 시기도 9월 20일로 되어 있어서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서대문감옥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출소는 大正 9年 4月 28日 은면(恩免)으로 되어 있어 형기를 다 채운 것이 아니라 1개월 일찍 출소했다. 카드 하단 모서리에 ‘축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감옥 생활 중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과는 초범이며, 비고란에 귀주지 본인 장남이라 적혀 있다.

천도교도인 강석대의 기록은 수감자 기록카드와 재판 판결문 정도에서만 보인다. 또한 당시 그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왕성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역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을 희망하여 만세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애국장에 추서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출판기념회

초 대 합 니 다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이며 원로 언론인인
돈의(悼義)김자동 선생의 두 번째 회고록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의 출판기념회를 갖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초청인 : 김정록, 이만열, 이부영, 이종찬, 이해동, 임재경, 채현국 (가나다순)

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만찬 오후 6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회비 2만원(회고록 증정)
- 식사예약 관계상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2-3210-0411)